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72호 【루계 제24950호】 주체104(2015)년 6월 21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김룡린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배우인 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단 배우 김룡린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0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쿠웨이트준비위원회 결성식이 4일 쿠웨이트시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쿠웨이트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아시아기자협회 위원장인 쿠웨이트 타임스출판사 행정국장 쟈위드 아흐마드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쿠웨이트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된것은 우리모두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위대한 령도, 위대한 단결은 미국과 서방의 끈질긴 방해책동속에서도 조선땅우에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국을 일떠세웠다.

조선은 가혹한 제재속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조선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 쟈위드 아흐마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6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발행하며 경축모임,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뻬루준비위원회가 10일 리마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 뻬루공산당(붉은 조국) 국제비서 따니 발레르 로뻬라가, 서기장으로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 유리 까스뜨로 로메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조선의 뜻깊은 명절들에 즈음하여 중앙경축집회, 업적토론회, 강연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4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김일성주석의 활동업적이 깃들어있는 최고사령부지휘처와 총참모부구락부를 비롯한 사적대상들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최고사령부지휘처가 김일성주석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을 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쳐부시였으며 미제의 고용간첩들과 반당종파분자들의 음모를 짓뭉개버리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잘 꾸리고 사진문헌들, 혁명사적물영구보존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놓은데 대해 치하하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 이란신문 《이란 뉴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와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 네팔신문 《아르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인디아신문 《아시아 카바르 데일리》는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였으며 원산육아원, 애육원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과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신 소식도 실었다.

도이췰란드의 인터네트홈페지와 네팔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엔떼웨TV방송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조선의 특성에 맞고 가물, 추위 등 불리한 날씨속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으며 병해충견딜성이 강하고 생육기일이 짧은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고 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김정은제1위원장께서는 농장이 포전관리와 농작물비배관리를 잘하고있다고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최첨단기술이 도입된 온실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이 소식을 올렸다.

한편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이 소식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꾸리고있는 종합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의 넋과 기상안고 오늘의 하루하루를 영웅적위훈으로 빛내이자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이어갈 철석의 맹세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행군 활발히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를 잘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천리방선을 지켜선 인민군군인들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계층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백두산에로의 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다.

6월초부터 평양시와 원산시, 강계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곳들에서 달려온 답사자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길에 올랐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린 답사자들은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졌다.

고무추동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종합해설을 들은 다음 전적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보천보전투지휘처, 우편국, 면사무소, 소방회관, 경찰관주재소 등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지략으로 보천보의 하늘가에 멸적의 총성을 높이 울리시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신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우리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뜨겁게 새겨안았다.

답사자들은 행군도중 보서리샘물터와 중흥등판명제비를 돌아보며 1950년대에 벌써 백두산에로의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시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였다.

리명수혁명사적지를 찾은 답사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45(1956)년 6월 이곳을 찾으시여 백두산일대의 혁명전적지를 모두 발굴하여 훌륭히 꾸려 혁명전통교양에 이바지하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혁명사적에 대한 해설을 주의깊게 들으면서 백두의 혁명전통이 우리 당에 의하여 어떻게 굳건히 옹호고수되여왔는가를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청봉숙영지와 베개봉숙영지를 찾은 답사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밥을 지으신 자리와 우등불자리, 구호나무들을 돌아보면서 발걸음을 뗄줄 몰라하였다.

건창숙영지에서 답사자들은 천막을 치고 하루밤 숙식하면서 항일혁명투사들의 강의한 신념과 백절불굴의 의지를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답사자들은 꿈결에도 그리던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하였다. 답사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투쟁력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지가 있어 백두산혈통으로 빛나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답사자들은 사령부귀틀집과 대원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사용하신 박우물과 손수 쓰신 혁명적구호문헌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고 사자봉밀영을 답사하였다.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며 답사자들은 백두의 준령들과 고개들을 넘고 넘어 혁명의 성산 백두산정에 올랐다.

강사의 해설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 백절불굴의 기상, 숭고한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고 있는 력사의 증견자라고, 백두대산줄기가 백두산으로부터 뻗어내렸으므로 백두산이 태동하면 온 나라가 태동한다고 하신 뜻깊은 말씀을 전해듣는 답사자들은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답사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정에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 장군봉에 오르면서 항일혁명선렬들의 숨결이 맥박치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글발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원수님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갈 철석의 맹세를 다지였다.

답사자들은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행군하여 무포숙영지, 무포낚시터, 신사동혁명전적지를 거쳐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백두산갈림길헌시비 등 항일혁명선렬들의 피어린 자욱이 어려있는 전구들에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발표모임, 문답식학습경연 등을 진행하면서 혁명선렬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열렬한 조국애, 혁명적락관주의를 뜨겁게 새겨안았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관리사업도 진행하고 삼지연지구철길건설공사장에 달려가 돌격대원들의 일손도 도와주는 답사자들의 모습은 성스러운 백두대지에 감동적인 화폭을 펼쳐놓았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행군은 답사자들모두의 가슴속에 혁명선렬들의 견결한 투쟁정신과 숭고한 정신세계를 심어주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철주

상반년계획을 넘쳐 수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원산시의 경공업공장들과 함경북도림업관리국의 로동자들이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더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이려는 열의안고 떨쳐나 상반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원산시의 경공업공장들에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과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원산시의 여러 경공업공장들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기한전에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시의 경공업공장당조직들에서는 대고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이 생산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경공업공장들의 일군들은 들끓는 생산현장들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면서 생산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시의 경공업공장들의 로동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는 긴장한 전력을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매월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계획수행기간 공장에서는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여 원산육아원, 애육원건설장과 도안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규격의 수지관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원산유리병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몸소 공장을 찾으시여 유리병생산기지가 큰 은을 내도록 온갖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유리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원산철제일용품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시의 다른 경공업공장들에서도 원료원천을 최대한 리용하여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식료품들과 경공업제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특파기자 신천일

함경북도림업관리국에서

함경북도림업관리국에서 지난 16일까지 상반년도 동발나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리국일군들은 사업소는 물론 작업소, 작업반들에 내려가 생산지휘를 보다 치밀하게 짜고들면서 나무베기와 동발나무운반실적을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일터마다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는 속에 상반년도 동발나무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사업소들이 늘어났다.

회령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은 다른 사업소들에 비해 동발나무생산계획이 높은 조건에 맞게 산판에 전투지휘부를 정하고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며 륜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로동자들을 위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어 그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었다. 그리하여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사업소앞에 맡겨진 상반년도 동발나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원갱목생산사업소, 온성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륜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탄광들에 더 많은 동발나무를 보내주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상반년도 동발나무생산계획을 완수하였다.

경흥, 경성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도 앞선 나무베기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륜전기재들에 대한 자검자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관리국적인 상반년도 동발나무생산계획수행에 이바지하였다.

특파기자 리은남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 승리의 함성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황해남도려단에서 언제우안 중력부콩크리트치기 빛나게 결속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이 되는 뜻깊은 날에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황해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려단이 맡은 언제우안 중력부콩크리트치기과제를 현장련합지휘부에서 높이 세운 전투계획날자보다 70여일이나 앞당겨 빛나게 결속하였다.

불과 4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6 300㎥이상의 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여 길이 수십m의 우안언제를 자기 높이에 올려세운 이 자랑찬 성과는 백두청춘들의 애국충정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로서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1호발전소건설을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오직 완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릴 애국충정의 맹세로 가슴 불태우며 지난 5월초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총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려단정치부에서는 화선식정치사업과 경제선동, 직관선전 등을 진공적으로 벌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투쟁에 떨쳐나선 청년돌격대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비상히 앙양시켜나갔다.

려단의 책임일군들은 언제건설현장에 이동참모부를 전개하고 지휘관들이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높은 공사속도를 보장할수 있는 대담하고 기발한 방법들을 착상하고 제때에 공사실천에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5월말부터 혼합기가 보충된데 맞게 려단이 맡은 5개의 블로크에 대한 콩크리트타입을 순차적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타입전선을 두곳으로 확장하고 대대별교대조직을 기동적으로 짜고들었다.

1대대와 2대대, 4대대와 3대대의 모든 돌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거듭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하여 높이 세운 하루전투과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현장방송으로 울려퍼지는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노래소리에 심장의 박동을 더해가며 청년돌격대원들은 세멘트와 혼석마대를 메고 경사급한 발판을 하루에도 백여차례나 오르내리고 혼합물을 담은 맞들이를 들고 달리였다. 한m한m 올라가는 언제의 높이를 백두청춘들의 신념의 산악으로 새겨안으며 청년돌격대원들은 대대별, 소대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언제콩크리트치기에서 시간마다, 날마다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였다.

려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언제완공의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길 불같은 일념안고 총궐기한 가운데 6월초에 들어와 5월에 비하여 하루 타입실적이 2배이상으로 뛰여올랐으며 하루 최고 300㎥이상의 타입실적이 기록되였다. 려단의 모든 청년돌격대원들이 다른 려단들에 비하여 력량이 적은 조건에서도 한사람이 두몫, 세몫씩 일감을 맡고 뛰고 또 뛰는 가운데 만년대계의 언제가 하루가 다르게 쭉쭉 솟아올랐다.

당에서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는 백두청춘들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현장련합지휘부에서 높이 세운 넉달분의 작업과제를 불과 40여일만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투쟁의 앞장에 서서 맡겨진 언제콩크리트타입과제를 기한전에 넘쳐 수행한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비상히 앙양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언제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초소에 달려가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위대한 력사, 불멸의 업적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강철의 당, 로숙한 당, 불패의 당으로 그 이름 찬연한 조선로동당의 일흔돐 력사속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령도업적이 눈부시게 빛을 뿌리고있다.

세계에는 력사를 자랑하는 당이 적지 않다.

하지만 조선로동당과 같이 당의 창건자, 령도자를 영원히 높이 모시는 사업을 더없는 중대사로 내세우고 세기를 이어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전통을 철통같이 고수하며 련면히 계승하는 당, 인민과의 혼연일체를 최강의 무기로 내세워 시대와 혁명앞에 영구불멸할 공적을 쌓아올리고 창건 일흔돐을 자랑스럽게 경축하는 당은 없다.

반세기에 걸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령도사,

이는 곧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승리, 영광의 력사이며 찬란한 미래의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하고 자랑찬 력사를 가진 혁명과 인민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그 끓어오르는 자부로 심장을 불태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6월과 더불어 민족번영과 인류자주위업에 위대한 업적을 쌓으신 우리 장군님의 장장 반세기의 당건설령도사가 뜨겁게 어려온다.

* *

위대한 공적이 가지는 력사적의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리기마련이다.

백두산칼바람으로 온갖 잡것들을 쓸어버리며 우리의 아름다운 리상을 향하여,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노도와 같이 전진하는 길에서 백승을 떨치는 조선로동당,

51년전의 6월과 련련히 잇닿아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오늘이다.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철의 신념과 비범한 예지가 넘쳐흐르는 담대한 영상, 온 우주가 담겨져있는 빛나는 안광, 천상천하를 휘여잡을 기백과 정력이 넘쳐나는 기상, 인간적향기가 풍기는 인자하신 모습…

혁명의 참모부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의 준수하신 모습은 첫 순간부터 사람들을 완전히 매혹시켰다.

사람들을 그처럼 순식간에 자석처럼 끌어당긴 위대한 장군님의 인격적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가.

명망높은 천재나 영웅은 그만이 풍기는 고유한 인격적향기가 있기마련이다.

사상도 리념도 위대하고 령도적자질도 탁월하며 인격도 거룩한 그런 리상적인 령도자를 인류는 우리 장군님의 모습에서 보았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적대국의 기자들까지도 위대한 장군님을 처음으로 뵈옵고 《김정일동지의 인격만으로도 통일할수 있다.》고 격정을 터치였겠는가.

력사의 첫 기슭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우리가 수행하는 혁명위업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이다.

우리 혁명위업이란 백두산에서 시작된 보람찬 혁명위업이다. 다시말하여 《ㅌ.ㄷ》의 강령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첫 자욱을 력사에 아로새긴 우리 당의 성스러운 위업이다!

주체혁명위업의 시원과 본질을 환히 밝혀주시는 그이의 위대한 선언은 만유인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세계를 끌어당기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걸어온 지난 반세기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신념과 의지가 위대한 현실을 펼친 경이적인 반세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률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신것은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이며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력사적위업이다.

세상에 공산당, 로동당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의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문제를 강령으로 내세우고 대를 이어 실현해온 당이 과연 언제 있었던가.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선포!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을 뚜렷이 하고 혁명과 인민을 령도하는 참모부로서의 당의 사명과 역할을 더욱 원만히 할수 있게 하였으며 주체의 궤도를 따라 선군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확신성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한 위대한 선언,

그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알리는 참으로 격동적인 사변이였다.

완벽한 철리로 인류를 깨우치시고 걸출한 사상으로 인류의 사상리론적보물고에 특출한 기여를 하신 위대한 장군님!

력사가 알지 못하는 걸출한 위인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이끄시였기에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친 수령의 당으로, 주체사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며 기백과 활력에 넘친 당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백전백승의 당으로 그 존엄을 만방에 떨칠수 있게 된것 아니던가.

그 격동적인 현실을 목격하며 진보적인류는 한결같이 격찬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권위있는 발언권을 행사하는 당》, 《전투성, 조직성, 규률성에 있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 1등급의 강철의 당》,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백전백승의 당》…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이끄신 반세기는 저 멀리 《ㅌ.ㄷ》에서 타올랐던 주체의 홰불이 지구상에 료원의 불길로 활활 타번지게 한 위대하고 불멸할 반세기이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사상의 위대성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의 토양에 씨를 뿌리고 키워오신 주체사상, 이를 무성한 숲으로 가꾸어 풍만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시면서 이룩하신 업적중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성스러운 혁명실록이 펼쳐지던 눈물겨운 나날들이 돌이켜져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 불덩이가 이글거리게 하는 잊지 못할 력사이다.

반세기의 력사속에 우리 당과 인민은 민족사상 겪어보지 못한 최대의 국상을 당하였다.

강철도 녹일 불같은 충정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영원한 일편단심이였다.

떨어져서는 순간도 살수 없는 민족의 어버이와 인민이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는 인류사적인 위업을 실현하신 충정의 화신 우리 장군님의 업적은 우리 당의 력사와 더불어, 진보적인류와 더불어 무궁토록 빛날 위대한 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였기에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시고 이 땅우에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끝없이 흐르게 되였으며 주체조선의 100년사가 더욱 빛나게 된것 아니던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이끄신 장장 반세기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쌓을수 있는 업적중 위대하고 불멸할 업적이 무엇인가를 과시한 승리와 영광의 반세기이다.

인간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시하자면 사회주의집권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한다는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뜻이 돌봐주듯이 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로, 보호자로 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모두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우리 장군님의 정치철학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을 한품에 안아 운명을 지켜주고 행복을 꽃피워주기 위해 험난한 가시덤불길도, 사나운 눈보라도 맞받아 헤쳐나가는 위대한 우리 당의 모습,

우리 당을 명실공히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여 이 땅을 일심의 대화원으로 가꾸어주신것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우리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세계사적인 업적이다.

우리 당을 자애롭고 친근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나날에 수놓으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헌신의 력사는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하여도 절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자신의 피로움은 가슴깊이 묻어두시고 사랑하는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견인불발의 의지로 하실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어느해인가 늘 최전연초소들에 나가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걱정하여 각지에서 인민들이 다시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 가시지 말아줄것을 간절히 청원하였을 때의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감동을 금치 못하시며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당에 들어오는것은 인민에게 더 잘 복무하기 위해서이다, 고생은 남먼저 하고 락은 뒤로 미루며 어려운 일은 스스로 맡아하고 성과는 남에게 양보하는 사람이 참다운 혁명가이고 로동계급의 당의 당원이다!

이런 숭고한 정치리념을 지니시고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우리 어이 잊을수 있으랴.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본분으로 하는 당이라고 하시면서 로동계급의 당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모두가 인민을 알아야 하고 인민을 사랑할줄 알고 인민의 지향을 파악할줄 알아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아글타글 애쓸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를.

그리고 나라없던 지난날 홀로 아홉남매를 키우느라 먹을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걸칠것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면서 손끝에 피가 마를새없이 자기를 깡그리 불태우다가 숨진 어머니에 대하여 늘 외우시며 이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인민모두를 보살펴주려는것이 자신의 요구이라고 하시던 그날의 우리 장군님의 모습을.

이런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에게 누가 진정으로 매혹되지 않으랴.

수천만의 인민을 친혈육이상으로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눈물겨운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신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의 정치를 누가 온넋으로 받들지 않으랴.

여기에 애오라지 당과 수령만을 아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심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새 세기 첫해 9월 어느날 우리 장군님께서 북방의 한 산골마을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한 농장원의 가정에 들리신 장군님께서는 집주인에게 조국이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집주인은 약초를 캐서 쌀을 사먹고 산열매와 풀뿌리를 가지고 끼니를 에웠다고,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엄동설한에도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시며 싸우신데 비하면 자기들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였다고 말씀올리였다. 천만군민의 사상상태를 보여주는 일단이였다.

우리의 적대세력들이 원자탄보다 더 무서워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은 천만시내물을 가림없이 다 품어안는 대양과 같이 우리 인민모두의 운명을 다 맡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시고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령도사가 펼친 경이적인 현실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과 한덩어리가 되여 투쟁한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그처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킨 비결이 있다.

위대한 선군정치를 떠나서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영예를 생각할수 없고 장군님의 위대한 한평생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오늘과 래일을 담보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령도사는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도 개척하지 못한 총대위업의 서사시를 성스럽게 엮은 강철의 선군령장의 반세기이다.

억천만번 일어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휘날리려는 우리 나라에 대한 원쑤들의 발악이 최절정을 이룬 년대와 년대들이였다.

오직 선군의 위력으로만 답새길수 있는 포악무도한 침략의 무리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위협한 시련의 년대들이였다.

선군정치는 그 어떤 강적도 물리치고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우리 시대, 우리 혁명의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신념과 의지, 사생결단의 헌신이 선군의 위력으로 용감무쌍하게 전진하는 백두산대국의 강대한 모습을 장엄히 떠올린것 아니던가.

인민과 사회주의의 운명, 민족의 존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장장 반세기 자신의 모든것을 선군에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로선인 선군정치방식을 내놓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

온 나라에 선군혁명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자주적근위병, 자주적인민으로 당당히 내세워주시고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제 할 소리를 다하게 하였으며 선군으로 기적적인 성공의 탑을 높이높이 쌓으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하늘같은 은공을 우리 어찌 세월이 흐른들 잊을수 있으랴.

우리 조국의 오늘을 이루는 모든것, 날로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비상한 선군신념과 의지의 산아이고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가 아니던가.

위대한 력사는 위대한 계승으로 하여 더욱 빛난다.

우리 장군님의 장장 반세기의 당건설령도사에 항상 마음을 얹으시고 위대한 충정과 헌신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충정과 의리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시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력사는 대하마냥 용용히 흐른다.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은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이며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떠나서는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장군님을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오직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는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실 때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조직사상적담보를 가지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는 철의 신념과 의지의 정치이다.

이런 위대한 충정과 순결한 의리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엄숙히 선언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떠나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의 존엄과 영예를 생각할수 없고 장군님의 위대한 한평생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의 래일을 담보할수 없다는 절대불변의 의지로 원쑤들에게는 무서운 공포를 주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에게는 산악같은 힘이 용솟음치게 하는 백두산칼바람이 폭풍쳐 휘몰아치게 하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영원한 일편단심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기에, 그 길에서 온 나라에 장군님 유훈관철의 기상이 거세차게 나래치게 하시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광스러운 당건설령도사가 더욱 눈부시게 빛나는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환희로운 현실이다.

성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영예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으로 떨쳐진다는 철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주체혁명의 새로운 100년대를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령도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며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반드시 최후승리의 날을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바다양어와 양식의 새 력사에 깃든 뜨거운 은정

어제도 오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없이 이어지는 절세위인의 강행군길우에 뜨겁게 넘쳐나는것이 있다. 사회주의바다향기이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히 먹이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꽃피워가시며 정력적인 령도와 불같은 헌신으로 안아오신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실이여서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지난 5월 인민군대의 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과 락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에 펼쳐졌던 화폭이 선히 어려온다.

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재부를 기쁨속에 보시는 그 시각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어려온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였다.

그 마음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군부대에서 연어양어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한 일이며 바다연어양어를 실현해야 우리 나라가 양어가 발전된 나라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소문없이 큰일을 해놓았다고 치하하시였다.

그날 락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를 찾으시여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락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가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연어도 먹을수 있게 되였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사업소를 건설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바다양어의 개척자들이라는 최상의 평가를 주시였다고, 이렇게 훌륭히 꾸려진곳에 장군님을 모시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찾으시는 곳,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며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은정을 더욱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정녕 천만년세월이 흐른대도 못 잊는다. 우리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히 먹이면 자신의 평생소원이 풀리겠다고 하시며 더 많은 물고기를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늘 당의 요구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라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양어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자욱은 오늘도 이 땅에 실려오는 사회주의바다향기와 더불어 빛나고 있다.

이 땅의 곳곳마다에 바다가양식기지들을 꾸려주시고 친히 찾으시여서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와 바다나물을 안겨주자고 하시며 바다가양식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한평생 인민을 위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그대로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어느해인가는 희한하게 꾸려진 양어장에서 욱실거리는 물고기떼를 보시고 저 물고기들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갈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며 그토록 마음쓰신분, 또 어느해인가는 수도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가득 안겨주시고 그들이 물고기료리를 자기의 고유한 맛이 살아나게 만들어먹게 하시려 친히 그 방법까지 가르쳐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히 먹이시려 열렬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나음악정보쎈터와 광복지구상업중심을 현지지도하신 다음날인 주체100(2011)년 12월 16일 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하나의 문건을 구체적으로 보시였다. 명절을 앞둔 우리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안겨주시려 문건에 빠진것은 없는가, 미흡한 점은 없는가를 세세히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필요한 대책까지 세워주시고서야 문건을 비준하시였다.

이렇게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며 열렬한 인민사랑의 력사를 그리도 감동깊이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열렬한 그 뜻을 그대로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과 락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를 찾으시고 인민을 위한 자욱을 련면히 새기신것이다.

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을 찾으시여서는 곳곳을 돌아보시며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이룩한 성과를 치하해주시고 더 높이 비약하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분, 락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를 찾으시여서는 수산업을 발전시키자면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양어와 양식의 전망과 미래는 바다로 나가는데 있다고 하시며 우리 나라가 바다양어와 바다가양식에서 선진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설 길을 환히 밝혀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종일 걸었으나 힘든줄을 모르겠다고, 바다연어양어를 틀어쥐고 근기있게 내밀면 얼마든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맡고있는 단위들에 가보면 언제나 기쁜 일이 기다린다고, 바다양어 좋을시구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종일토록 헌신의 길을 헤치시고도 만시름을 잊으신듯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한없이 후더워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힘겨운 바다양어에 뛰여들어 날바다와 싸울 때 그 어떤 명예나 평가를 바랐다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재부를 하나하나 늘여나가는데서 보람을 찾는 애국의 마음이 이런 자랑스러운 현실을 펼칠수 있었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 조국의 북변에서 참된 애국자들을 만나게 된것이 정말 기쁘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뜨거운 격정이 파도치였다.

참된 애국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며 천만의 가슴마다에 불같은 애국의 넋을 새겨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도 그 모든 영광을 평범한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다 안겨주시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격정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작이 절반이라고 일단 첫걸음을 잘 떼였는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고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바다연어양어를 중도반단하지 말고 밀고나가야 한다고, 사업에서 제기되는것은 자신께서 다 풀어주고 힘껏 도와주겠다고 크나큰 힘과 용기를 거듭 안겨주시였다.

이 땅우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더욱 넘치게 하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크나큰 로고와 헌신의 세계는 정녕 끝이 없다.

인민군대에서 마련한 물고기를 원아들과 과학자들을 비롯한 인민들에게 보내주시고 물고기를 받아안고 웃고 떠드는 인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고 또 보시며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자한자 쓰신 글발이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나아갑시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애국의 호소에 온 나라의 천만군민이 화답해나섰다.

오로지 인민을 위해, 강성국가건설의 빛나는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우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넘쳐나고있다.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사랑과 은정에 떠받들려 이 땅우에 넘쳐나는 사회주의바다향기속에 우리 인민의 기쁨과 행복은 더욱 꽃펴날것이다.

본사기자 김 인 선

푸른 숲에 어린 숭고한 뜻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주체93(2004)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부대주변은 어디에나 나무들이 우거져있었다. 병영구내에 규모있게 심은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던져주고 산과 골을 꽉 덮은 울창한 나무숲은 대기를 청신하게 하여주고있었다.

부대를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투동원준비도 빈틈이 없고 군인들의 사상정신상태도 훌륭하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주변산들을 가리키시며 그야말로 나무천지라고, 부대병영구내는 물론 주변산들에까지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었다고 하시면서 부대군인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부대지휘관들은 격정에 휩싸였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자체로 양묘장을 꾸려놓고 나무심기를 힘있게 내밀어온 자기들의 소행을 너무도 응당한것으로 여겨온 그들이였다.

푸른 숲을 가꾸어온 이곳 부대군인들의 애국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양묘장에 가보자고 하시며 걸음을 옮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과일동산이라고, 부대구역이 수림화된데다가 군인들에게 갖가지 과일까지 먹이니 얼마나 좋은가고 기뻐하시며 푸른 숲 우거진 산들과 골안을 보고 또 보시였다.

바로 이때 이산저산에서 뻐꾹새소리가 울려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뻐꾹새가 운다고, 뻐꾹새소리가 유정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산림이 울창하니 뻐꾹새를 비롯한 온갖 새들이 다 찾아오고있다고, 나는 뻐꾹새소리를 고난의 행군이후 여기에 와서 처음 듣는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윽하여 저 뻐꾹새소리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짓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잘되리라는 좋은 징조라고 볼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하나의 새소리에서도 풍치수려하고 백화만발하는 조국강산을 그려보시며 심장을 불태워오신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뜻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은 푸른 숲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정 선 철

박 봉 주 총 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과 중앙동물원 개건보수공사장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과 중앙동물원 개건보수공사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자들은 이미 조성한 풀판비배관리를 잘하는것과 함께 고기가공공장, 사료가공공장을 비롯한 중요대상들과 집짐승우리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총리는 축산기지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21세기 본보기축산기지의 건축물답게 건설물들의 질을 높이며 련관단위들에서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총리는 또한 중앙동물원 개건보수공사장을 돌아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자연박물관과 본관, 수족관 등의 건축공사가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총리는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창조되고있는 공사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기 위해 헌신하고있는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혁신적성과를 고무해주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관계부문 일군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봉주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 현지료해

수수한 나무걸상에 앉으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은 그 어느 위인과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습니다.》

주체39(1950)년 11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고산진의 최고사령부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를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이끌어주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야전환경속에서 리발을 하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발기를 들고 어쩔줄 몰라하는 리발사에게 너그러운 미소를 보내시며 수고를 좀 해주시오, 지금은 1초가 새로운 때요라고 하시며 수수한 나무걸상에 앉으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고 시간이 긴박하였으면 리발하시는 순간에도 1초가 새롭다고 하시랴 하는 생각에 리발사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그에게 시간이 없어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다 만나지 못하오, 전선에서는 급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소, 그러니 오늘은 리발을 간단히 하고 급한 고비나 넘기자고 조용히 이르시였다.

어느덧 리발이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간이 없는데 면도는 그만두자고 하시며 일어서려 하시였다.

리발사는 안타까운 마음을 바재이며 그이께 뒤면도만이라도 꼭 하셔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발사의 간절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다시 걸상에 앉으시였다. …

인류의 전쟁사에는 명장들에 대한 일화들이 수많이 전해지고있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처럼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위해 1분1초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며 헌신분투하신 례가 기록된적이 있었던가.

총포성이 울부짖는 조국해방전쟁의 매 순간순간이 그렇게 흘렀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엮어졌다.

이 위대한 헌신의 순간순간, 날과 달들이 있어 반공격에로의 전환적국면이 열리였고 마침내는 조국의 고지마다에 승리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본사기자 강 철 남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내밀자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에서 높은 책임성 발휘

함경남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봄에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하여 사름률을 높이고 산림보호관리사업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군인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어 그들이 드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인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에서 심은 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하여 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사상공세를 집중적으로, 련속적으로 들이대며 특히 산림부문 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해설담화와 방송선전차활동,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참신하게 벌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산림복구전투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자기들이 심은 어린나무들이 거목으로 자랄 때까지 품을 들여 가꾸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급기관들과 시, 군책임일군들, 산림부문 일군들은 심은 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하여 사름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올해 자기 단위들에서 심은 나무들을 책임지고 살려내도록 개인별담당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장악통제와 총화사업을 드세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산림복구전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청년동맹위원회, 도직맹위원회, 도농근맹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일군들이 정상적으로 담당지역들에 나가 대중과 어깨겯고 심은 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를 깐지게 하여 사름률을 95%까지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시, 군들에서도 책임일군들과 산림부문 일군들이 이신작칙하면서 조직사업과 기술적지도를 짜고들어 심은 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단천시에서는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을 발동하여 군중적으로 심은 나무의 비배관리와 산림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시에서는 농촌지원전투로 드바쁜 속에서도 시의 동, 인민반녀맹원들을 발동하여 한주일에 1~2회씩 심은 나무에 대한 물주기와 김매기를 어김없이 함으로써 사름률을 높이고있다.

신흥군에서는 군급기관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종업원들은 물론 동, 인민반들의 주민들속에 들어가 나무를 망탕 찍는 현상을 없애도록 해설담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것과 함께 심은 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그리고 녀맹기동예술선동대들을 발동하여 협동농장들과 군급기관들에 나가 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산림보호사업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활동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정평군에서는 조림작업반, 조림분조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심은 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게 하고있다. 함주군 책임일군들과 산림부문 일군들이 지구별로 맡고 나가 대중을 이끌어 심은 나무들에 대한 물주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것과 함께 김매기를 2회이상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전군에서는 많은 녀맹원들이 자진하여 동, 인민반별사회주의경쟁을 벌리면서 심은 나무들에 대한 물주기와 김매기, 숲사이 나무모비배관리를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도와 시, 군들의 산림복구전투지휘부의 일군들은 산판들에 자주 올라 심은 나무들에 대한 물주기와 김매기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총화사업을 엄격히 해나가고있으며 산림부문 일군들은 나라의 귀중한 산림에 병해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찰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기술적지도를 심화시키고있다.

고원, 영광, 락원, 리원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심은 나무들에 대한 가꾸기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이 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산림조성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를

량강도산림과학연구소 연구사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림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나무육종과 산림조성 및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깊이 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량강도산림과학연구소 연구사들이 백두산일대의 산림건설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연구소에서는 지난 기간 백두산혁명전적지특별보호구의 산림식물피복도와 산림분포도, 산림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많은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산림립지 및 림종분류와 산림전망형성기준작성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은 교수, 박사 김광보동무는 오늘도 백두산생물권보호구에 대한 연구사업에 자기의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오랜 연구사인 박준순동무는 고결한 애국충정의 마음을 간직하고 피타는 사색과 열정을 기울여 백두산지구에서 이깔나무, 봇나무 혼성림조성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지금까지 봇나무는 자연적으로만 번식하는것으로 되여있었지만 그는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지구의 산림자원을 보다 풍부히 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게 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씨앗에 의한 봇나무모기르기에 성공함으로써 혼성림조성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에 의한 혼성림조성은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혼성림조성은 산림토지를 비옥하게 하여 산성화를 막게 하며 이전보다 산림의 생산성을 1.5배로 높이고 병해충과 산불발생률을 낮출수 있게 한다. 그리고 지피식물피복이 활성화되고 생물계가 다양해져 산림생태환경이 더욱 풍만해지게 한다.

실장 허원, 연구사 전룡선, 문응세동무들은 압록강일대에서 이깔나무와 들메나무에 의한 혼성림조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러한 수종의 나무들로 혼성림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성과에 만족해하지 않고 현재 김형직군 고읍로동자구에 학술연구림과 시험장을 꾸리고 여기에서 키운 나무모로 혼성림을 조성해나가고있다.

실장 김우현, 연구사 리용수동무들은 기름밤나무 두둑식양묘에 성공하여 산림복구전투를 위한 과학기술발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전까지 기름밤나무양묘는 이랑식으로 전개하는것이 보편적인것으로 되여있었다. 종전의 방법대로 하면 싹트기률이 낮고 단위면적당 나무모생산성이 떨어지며 생장을 고르롭게 하기 위해 비료주는 량을 늘여야 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씨뿌리기시기와 렬 및 포기사이간격, 복토두께 등 두둑식나무모기르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이밖에도 연구소에서는 속성뽀뿌라나무의 우량계통선발과 줄기주입법에 의한 해충구제방법을 비롯하여 산림복구전투에서 나서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연구완성하여 현실에 적극 도입일반화하고있다.

연구소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나무모생산방법과 기술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수종이 좋은 나무품종들을 량강도의 기후풍토에 순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비롯하여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분발하고있다.

특파기자

중심고리를 정확히 틀어쥐고

곡산군 일군들

곡산군에서 산림복구전투를 방법론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2월 어느날 군당위원회에서는 산림복구전투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군안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기 위한 협의회가 열리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중심고리를 어디에 둘것인가 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온 군이 떨쳐나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군중적운동으로 벌어지는 이 사업에서 기본력량은 군안의 산림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그러므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군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떠밀어주어야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

군당책임일군의 이 말은 참가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때부터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단위들이 산림경영소를 진심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적극 발벗고나섰다.

군당책임일군은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인 나무모생산을 위해 토양의 비옥도, 물보장조건 등을 따져본 다음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짧은 기간에 양묘장을 번듯하게 꾸려주었다. 밭갈이때문에 애를 먹는다는것을 알고는 힘껏 도와주어 2~3일동안에 끝내도록 하였으며 종업원들의 생활에서 애로되는 문제들도 적극 풀어주어 모두가 나무모생산에 전념하도록 떠밀어주었다.

군인민위원회 책임일군도 군산림경영소의 나무모재배를 위한 온실건설에 많은 량의 세멘트와 강재가 필요된다는것을 알고 벌려놓은 일이 많지만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건설자재를 해결해주었다. 책임일군들의 뒤를 따라 군의 일군들은 군산림경영소를 더 잘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누구나 발벗고나섰다.

군에서는 수송기재들을 동원하여 100여m³의 모래를 양묘장에 실어다주어 적기에 나무종자씨뿌리기가 진행되도록 하고 관수에 필요한 수백m의 비닐관이며 양수기, 태양빛전지판도 보내주어 나무모생산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 나날 양묘장의 종업원들은 나무모를 더 잘 키우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고 산림감독원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나무심기와 가꾸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알려주며 산림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갔다.

이렇게 되여 군의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에서는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중시한 땔나무림조성사업

무산군에서는 올해 봄 산림복구전투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많은 면적의 산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대대적으로 심었는데 그 사름률 또한 높았다. 1500여m에 달하는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한달동안에 끝내여 양묘장들에 물을 넉넉히 보장해줄수 있게 되였고 빨리 자라는 새로운 수종의 나무모를 풍토순화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되였다.

하지만 군의 일군들은 자기들의 사업에 부족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땔감수요를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계획을 세워 땔나무림조성을 힘있게 내밀지 못하였던것이다. 일군들은 자기들의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았다.

군의 책임일군들은 협의회를 열고 땔감문제해결을 위한 일군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땔나무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리용하는것이였다. 석탄이 나지 않는 군의 실정에서 더욱 그러했다. 특히 협동농장들에서 땔나무림을 조성하면 땔감은 물론 소농기구감이며 집짐승먹이를 해결하는데도, 꿀벌을 치는데도 좋았다. 뿐만아니라 산의 걸층흙이 씻기우는것을 막는데도 좋았다.

협의회에서는 땔감을 절약하기 위한 안들도 제기되였다. 하지만 군의 실정에서 땔감문제해결의 가장 좋은 방도는 땔나무림을 조성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모든 단위들에서 올가을부터 땔나무림을 더 많이 조성하는것과 함께 땔감을 극력 절약할수 있는 좋은 안들을 즉시 실천에 옮기기로 하였다. 이어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이루어졌다.

특파기자

사름률조사와 빈틈없는 대책

자강도의 산림부문 일군들

자강도에서 산림복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조국의 산들을 더욱 푸르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봄철에 이미 2만 5천여정보의 면적에 달하는 산들에 나무를 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산림부문 일군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봄철에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김종혁, 김영남동무를 비롯한 도의 산림부문 일군들과 시, 군 인민위원회와 산림경영소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강계시와 만포시 그리고 화평, 성간, 우시군을 비롯한 도의 모든 시, 군들에서 사름률조사를 진행하고 다시 심어야 할 나무수량을 확정하기 위한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도 산림부문 일군들은 시, 군별사름률조사가 끝나가는데 맞게 다시 심어야 할 나무수량을 확정하고 심은 나무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의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이미 다시 심어야 할 나무의 그루수가 확정된데 맞게 가을철에 군중적운동으로 계획된 면적에 나무를 심을것과 함께 봄철에 나무를 심은 단위들에서 살리지 못한 나무수만큼 다시 심도록 그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게 하고있다. 그에 맞게 시, 군의 산림부문 일군들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나가 봄철에 진행한 산림조성사업에서 나무의 사름률을 높인 성과와 경험을 잘 알려주고 순결한 애국의 마음안고 나무심기에 떨쳐나서도록 해설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도의 산림부문 일군들은 가을철에 심을 나무모와 함께 다시 심어야 할 나무수량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고있다. 이를 위해 시, 군별로 다시 심어야 할 나무의 수량까지 합쳐 가을철에 심어야 할 나무의 총수량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시, 군산림경영소들에서 서로 교환의 방법으로 모자라거나 요구되는 수종의 나무모를 충분히 마련해놓도록 경제조직사업을 따라세우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애국의 한마음으로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만포시산림경영소 조림작업소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세포의 붉은기높이 힘차게 전진

각지 당조직들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높이 모든 부문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당창건 7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각지 당조직들의 투쟁열의가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언제나 중요한 당적사업으로 틀어쥐고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문덕수산사업소에서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단위의 전투력을 높이 떨치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사업소구내에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와 영생탑을 정중히 건립하고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한편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당정책관철에로 종업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생산지휘의 신속성과 통일성을 보장하고 어군탐색을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과 배무이와 배수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하여 사업소에서는 최근년간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물고기잡이에서 서해지구 수산사업소적으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당조직에서는 문화후생시설들과 공공건물들을 번듯하게 꾸리고 구내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사업소의 면모를 일신시켰으며 온실과 종합축사를 비롯한 후방기지를 잘 운영하여 종업원들의 식생활을 향상시켜나가고있다.

희천은하피복공장 당조직에서도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종업원들속에서 위대성교양을 비롯한 5대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그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과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 등에서 앞장서도록 하고있다.

또한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기술혁명수행에 큰 힘을 넣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 한편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각종 지구와 빛수감에 의한 맞단추계수기, 천풀기장치를 비롯한 수십건의 기술혁신안을 도입함으로써 생산능률을 1.6배로 높이였다.

당조직의 발기와 지도밑에 생산건물을 개건하고 구내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짧은 기간에 공장의 면모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되였다.

평양면옥 당조직에서도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 자랑할만 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당조직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연혁소개실을 사상교양거점답게 잘 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그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 깨끗한 충정과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적극 발휘되였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내외부벽체와 주방, 식사실을 개건보수하고 강냉이국수를 비롯한 민족음식의 질을 개선하며 봉사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그리고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종업원들이 혁명적랑만에 넘쳐 생활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이름지어주신 단위답게 모든 면에서 앞장섬으로써 평양면옥은 얼마전에 3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았다.

이밖에도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최근년간 해마다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재령군 북지협동농장 제1작업반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있다.

어머니당에 드리는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드높은 열의밑에 대중운동에 큰 힘을 넣고있는 각지 당조직들의 투쟁은 보다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순영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따라 선경마을들이 일떠섰다

전국각지의 농촌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각지 농촌들에 현대적인 선경마을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동안 전국적으로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수백동의 문화회관, 편의봉사시설 등 공공건물들이 훌륭히 건설 및 개건되여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된 농촌마을들이 더욱 늘어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잘하여 우리 나라의 농촌을 말그대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민의 락원으로, 모든 농촌마을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시켜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선군시대 본보기농장들처럼 농촌마을들을 훌륭히 건설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밑에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평양시 일군들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려는 혁명적신념과 투지, 배짱으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특히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소재지마을을 전국의 본보기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짧은 기간에 수백세대의 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훌륭히 일떠선 결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농장의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였다.

력포구역의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류현리를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다. 건설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내부예비를 최대로 리용하는 한편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메탄가스화가 실현된 수십동의 살림집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였다. 또한 수백m의 도로를 확장하고 그 주변에 백수십그루의 나무를 심어 농장마을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강남군에서는 자체의 건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수십동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울타리들을 특색있게 건설하였다. 삼석구역에서는 장수원협동농장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개건하고 수천㎡의 도로포장과 새 품종의 잔디심기를 진행하여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황해북도 일군들은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뚫고나가면서 금천군과 토산군에 건설하는 살림집들에 씌울 수십만장의 조선기와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은파군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강안리마을의 면모를 변모시킬 열의로 가슴을 끓이며 힘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그들은 낡은 살림집들을 헐어버리고 농장원들의 생활상편의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을 짧은 기간에 건설하였다. 특히 새로운 메탄가스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농장원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였다. 봉산군에서는 청계리에 수십동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면서 지대적특성으로 하여 어렵다던 상수도공사와 메탄가스화를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완성하였다. 황주군에서도 침촌리에 수십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세대마다 10여그루의 과일나무들을 심어 마을을 과수원화하였다.

평안북도에서도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맛이 나게 꾸리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구장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하나를 건설해도 손색이 없게 건설할 비상한 각오밑에 룡연리의 마을에 전기난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쳐나갔다. 삭주군에서도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앞세워 수십동의 살림집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일떠세웠다.

황해남도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불굴의 투쟁으로 강령군과 안악군의 논밭가운데 널려있던 수백동의 살림집들을 정리하여 산기슭에 새로 옮겨지었다.

평안남도 숙천군 열두삼천농장, 함경북도 연사군 남작리에도 살림집들이 번듯하게 솟아났다.

강원도 창도군에서는 대백리에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살림집설계와 시공을 잘하여 수십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특색있게 건설하였다.

량강도 김형권군, 남포시 온천군, 함경남도 홍원군을 비롯한 다른 도, 시, 군일군들도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로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농촌살림집건설을 다그쳤다.

각지에 건설된 농촌문화주택들의 내부에는 여러칸의 살림방과 전실, 부엌 등이 있고 야외에는 집짐승우리, 퇴적장 등이 있다. 또한 새로 일떠선 많은 농촌마을들에 메탄가스화가 실현되였으며 집주변에는 5그루이상의 과일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였다.

내 나라 농촌에 날로 늘어나는 선경마을들은 절세위인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며 자기 사는 고향을 선경으로 더 아름답게 꾸리려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애국심의 발현이다.

황철민

고산땅에 펼쳐진 농장마을의 새 모습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당정책에서 묘술을 찾아 대담하게 실천하자

중앙현장지휘부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계획한 투쟁목표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총공격전이 벌어지고있는 세포전역에서 충정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때에 우리는 중앙현장지휘부 일군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전투장 어디를 가보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나래치고 당을 따라 위훈창조의 천만리길을 이어가려는 건설자들의 기세가 대단하다. 앞으로의 건설목표와 그 수행정형에 대해 알고싶다.

부책임자 리경식: 우리는 당창건 일흔돐까지 이미 진행해온 수만정보의 풀판조성사업을 완성하는것과 함께 먹이풀생산을 늘이며 수천동의 대상건설을 완공할 목표를 내세웠다. 여기에 맞게 우리는 지역별풀판면적과 정보당 먹이풀밀도를 정확히 보장하며 그 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내밀고있다.

지난해 일부 돌격대들에서는 풀판의 적지 않은 면적에서 정보당 수십t의 먹이풀을 수확하였다. 우리는 이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에는 정보당 먹이풀수확량을 훨씬 더 늘이기 위해 풀판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잘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대상건설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우리앞에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살림집과 수백동의 집짐승우리, 고기가공공장을 비롯한 생산건물들 그리고 100여개소에서 수백동의 공공건물건설을 완공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현재 수백동의 대상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앞으로 100여일동안에 나머지 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낼 결심이다.

일감이 방대한데 비해 로력과 자재가 긴장하며 기일도 매우 짧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 제시된 과업과 당정책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여기서 묘술을 찾아 대담하게 실천할 때 점령못할 요새란 없다.

우리는 자기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지고 총공격전의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 전투작전과 지휘를 보다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열의를 불러일으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감으로써 높은 목표를 반드시 수행하겠다.

기자: 면밀한 작전은 전투성과를 담보하는 선결조건이라고 본다. 그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었으면 한다.

분과장 강만성: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에 제시된 과업을 승리의 리정표로 삼고 당창건 일흔돐까지의 목표수행을 위한 작전을 과학적으로 하였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여러 군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 대규모축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인것만큼 우리는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풀판조성을 하며 살림집, 집짐승우리, 생산 및 공공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정확히 세우는데 힘을 넣었다.

또한 축산기지건설에 동원된 시공단위들을 능력에 맞게 해당한 지역에 배치하고 풀판조성과 대상건설분담을 바로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여기서 설계를 확고히 앞세우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설계를 맡은 일군들은 당의 뜻대로 하부구조설계를 선행시키는것을 철칙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작성한 설계가 그대로 훌륭한 창조물이 되도록 하자면 자재와 설비보장을 시공에 앞세워야 한다.

우리는 련관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먹이풀씨와 비료, 농약 그리고 세멘트, 강재, 목재, 변압기, 전동기, 양수기를 비롯한 건설자재와 설비를 해결하여 제때에 수송하기 위한 작전을 하고 강하게 내밀고있다. 동시에 시공단위들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고있다. 성, 중앙기관, 도, 시, 군책임일군들이 건설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줄 때 목표수행전망은 더 확고해진다.

기자: 세포등판에서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의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도록 하자면 풀판비배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본다.

분과장 임태원: 현재 가물이 지속되는것을 비롯하여 비배관리에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고있다. 하지만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정성과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바치며 풀판을 꽃밭처럼 잘 가꾸기 위해 애쓴다면 얼마든지 난관을 극복할수 있다.

우리는 가물피해를 막기 위해 각 돌격대와 려단에서 여러가지 영양액과 성장촉진제를 풀판에 분무해주도록 하였다. 우물도 대대적으로 파서 리용하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지금 농업과학원돌격대, 함경남도려단에서는 무동력분수식관수체계와 풀판의 곳곳에 판 우물을 리용하여 가물피해를 막고있다. 우리는 모든 단위에서 이런 경험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온갖 가능성을 리용하여 가물피해를 막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하고있다. 김매기를 잘하면 잡풀을 없앨뿐만아니라 가물피해도 막을수 있다.

우리는 돌격대와 려단들에서 쉽게 해결할수 있는 원료로 원가가 적게 드는 농약을 만들어 리용하는것과 함께 나비등을 설치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병충해막이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한편 많은 모판을 만들고 여기서 키운 모를 풀판에 옮겨심어 먹이풀밀도를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일관성있게 내밀며 세포지구의 지대적특성에 맞는 비배관리방법을 계속 연구도입하고있다.

분과장 김철호: 지금 세포군에서는 2~3층짜리 살림집 10동과 소목장이, 평강군에서는 살림집 수십동에 여러동의 공공건물, 고기가공공장을 비롯한 생산건물들이 건설되고있는 등 곳곳에서 전에 없이 통이 큰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지난해보다 완공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고 건설지역도 넓어졌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모든 시공단위의 기술지도력량을 더욱 강화하며 그 역할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건설장이 수백리 먼곳에까지 있는 실정에 맞게 시공기술지도일군들이 한달에 20일이상 현지에 나가 중요대상건설추진에 힘을 집중하면서 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실태료해와 장악보고, 대책을 세우는 사업이 그전보다 더 신속정확히 진행될수 있도록 하였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하자면 시공단위들에서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시공공정계획대로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그 방도의 하나가 당의 시공의 전문화방침관철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

우리는 황해북도려단을 비롯하여 건설에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시공단위들에서 실정에 맞게 자체로 기능공을 양성하고 시공의 전문화를 실현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반복시공을 없애고 로력과 자재, 시간을 절약하면서 건설속도와 질을 최대로 높이게 하였다. 또한 대상의 특성에 따라 자재공급을 합리적으로 하여 긴장한 자재를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면서 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기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드세찬 공격전을 벌리고있는 축산기지건설자들이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수행하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떳떳이 들어서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소금공업관리국돌격대에서

우승의 영예를 고수한 비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건설에서 앞선 공법을 받아들이는것은 속도와 질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공업관리국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일 불타는 열의밑에 대상건설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그 비결은 공사성과를 담보할수 있는 묘술을 찾아쥐고 실천한데 있다.

우선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인것이다. 벽체를 쌓고 골조공사를 한 다음 건설을 우에서부터 아래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하는 원칙에서 완공해나가는 방법을 받아들이였다.

돌격대가 2층으로 된 집짐승우리건설을 맡아 벽체를 다 쌓았을 때였다. 일부 일군들은 이제는 외부미장부터 하면서 건설을 완공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내부미장은 비가 와도 할수 있기때문이였다. 또 외부미장을 미끈하게 해놓으면 누가 보아도 이 단위의 건설공정이 빨리 추진된다는 인상을 줄수 있다는것이 그들의 속생각이였다.

돌격대를 책임진 일군인 량영일동무는 그것이 바로 일종의 겉치레라고 보았다. 벽체를 다 쌓으면 지붕을 씌워야 한다. 그러자면 건물밖에서 기와, 목재 등을 운반해들여야 한다. 그때 장식미장까지 하며 품들여 완성해놓은 문틀을 비롯한 외부벽체가 손상될수 있었다. 그것을 원상복구하려면 적지 않은 로력과 자재, 시간을 랑비해야 하였다. 겉치레는 이처럼 백해무익한 결과를 낳는다. 때문에 당에서는 형식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지 않는가.

그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에게 당의 뜻을 깊이 새겨주며 공사성과를 확고히 담보하는 공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돌격대에서는 력량을 분산시키지 않고 총집중하여 지붕공사부터 해제꼈다. 그리하여 벽체의 안전성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비가 와도 내부공사를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놓았다. 그리고 지붕을 떠받들고있는 골조미장부터 하면서 우로부터 건설을 완성해내려왔다. 안으로는 내부벽체와 바닥미장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외부공사를 결속하였다. 이렇게 하여 반복작업을 없애고 많은 시간을 쟁취하여 맡은 대상건설을 다그침으로써 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돌격대가 그후 새 건설대상을 맡았을 때 일군들이 실정에 맞게 일정계획을 세운 사실도 주목된다.

종전에는 기초파기로부터 건설을 시작하는것으로 일정계획을 세우군 하였다. 하지만 일군들이 타산해보니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것이 실정에 맞지 않았다. 기초파기를 한 다음에는 인차 콩크리트치기를 할수 있게 되여야 공정을 일정계획대로 맞물릴수 있었다. 그런데 운반수단이 긴장하여 기초콩크리트치기에 필요한 골재를 인차 확보할수 없는 정황이 조성되였던것이다. 이미 쟁취한 우승의 영예를 고수할 열의에 충만된 돌격대원들은 벌써 기초파기에 들어간 다른 단위들을 넘겨다보며 초조해하였다.

물론 돌격대에서도 기초파기를 먼저 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일감이 떨어져 건설에서 공백이 생기게 된다. 때문에 일군들은 기존방식을 바꾸어 자재준비를 기초파기에 앞세우기 위한 일정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맞추어 돌격대원들은 멀리 강이 있는 곳에 나가 골재채취를 하였다. 한쪽으로는 벽체를 쌓을 블로크생산도 하였다.

얼마후 운반수단이 마련되자 이들은 기초파기를 불이 번쩍나게 해제꼈다. 그리고 이미 확보한 자재를 실어들여 뒤공정들을 련속 맞물리며 새 대상건설에서도 우승의 영예를 힘있게 떨쳐나갔다.

어느 길이 옳았는가

평양시려단 선교구역대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먹이풀판을 논밭을 가꾸듯이 비료와 농약을 치고 관수를 하면서 잘 가꾸어야 합니다.》

어느 길을 택할것인가. 이것은 평양시려단 선교구역대대에서 먹이풀모옮겨심기를 앞두고 제기된 물음이였다. 가물이 지속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물보장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였던것이다. 당시 물보장조건이 제일 불리한 지역의 먹이풀판을 담당한 대대앞에는 두가지 길이 놓여있었다.

하나는 종전처럼 먹이풀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있는 저수지물을 계속 운반하여 리용하는것이였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있었다. 운반수단을 동원하면 그 량이 제한된 저수지물로도 가물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수 있다는것이 그들의 견해였다.

다른 하나는 풀판구역에서 기어이 물원천을 찾아내자는것이였다. 품은 좀 들지만 곳곳에 우물들을 파놓으면 먹이풀영양관리에서 한몫 단단히 할수 있다는것이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의 견해였다.

먹이풀의 초기생육보장이라는 점에서는 모두의 견해가 일치하였다. 하다면 두 길중 어느쪽을 택하겠는가.

대대일군들인 박명철, 안승팔동무들은 주저없이 두번째 길을 택하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렸다.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시추설비도 없는데 무슨 수로 물있는 곳들을 정확히 찾아내겠는가 등 의견들이 분분하였다. 하지만 대대일군들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다.

우물파기가 단순히 물이나 확보하여 먹이풀판의 전망을 담보하기 위한 경제실무적인 문제이기에 앞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과 직결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우물파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일군들은 이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나섰다. 다음날부터 작업조별로 물있는 곳을 찾기 위한 전투가 진행되였다. 그런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일반적으로 버드나무들이 자라고있는 곳의 땅속에는 물이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지점들을 선택하여 땅을 한길나마 파보았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속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때 손맥을 놓고있는 돌격대원들에게 대대일군들은 이쯤한 난관앞에서 주저앉는다면 어떻게 우리를 선군시대의 대자연개척자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겠는가, 풀판구역을 모조리 뒤져서라도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물원천을 찾을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안을 내놓았다. 저수지쪽을 다시 파보자는것이였다.

근거가 있었다. 현재 저수지의 물높이자 먹이풀판구역의 지하수위였다. 저수지쪽의 풀판구역이 얼핏 보기에는 지대가 좀 높아보여도 실지에 있어서는 낮았다. 때문에 그곳의 지하수위가 여기보다 높을수 있으므로 력량을 집중하면 얼마든지 물원천을 찾아낼수 있었다.

대대앞에 맡겨진 먹이풀판조성과제를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자각, 당정책관철의 길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려는 이들의 뒤를 돌격대원들이 적극 따라나섰다. 또다시 물원천을 찾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드디여 9개의 지점에서 물이 나왔던것이다.

대대일군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확보된 물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갔다. 이들은 우물마다 물량이 제한된 조건에 맞게 그것을 순환식으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먹이풀판을 여러개의 구역으로 나눈 다음 물주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작업조직을 면밀하게 해나갔다. 결과 가물이 지속되는 불리한 속에서도 먹이풀들의 초기생육을 안전하게 보장하여 정보당 풀생산을 높일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결국 두 길중 어느쪽이 옳았는가는 명백해졌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비배관리에 구운흙을 적극 리용

함경남도려단 사포구역대대에서

함경남도려단 사포구역대대가 맡은 인공풀판에 흐뭇한 먹이풀작황이 펼쳐졌다. 비결은 비배관리에 구운흙을 리용한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등판에 좋은 품종의 풀씨를 심고 풀판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비배관리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어느날이였다. 현장을 돌아보던 대대장 김태일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일부 포전의 먹이풀상태가 시원치 못하기때문이였다.

당의 뜻대로 지대적특성에 맞는 비배관리방법을 완성하여 먹이풀생산량을 늘이자면 옳바른 방도를 찾아 일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현장에서 일군들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열띤 론쟁을 벌렸다. 비료와 농약, 성장촉진제 등을 많이 확보하여 포전에 치자는 안도 나왔고 곳곳에 나비등을 설치하여 병해충피해를 막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좋은 제안들이였다. 그러나 비료와 농약, 성장촉진제와 같은것이 부족하다면 먹이풀의 생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을것이였다.

문제를 이렇게 본 대대장은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다. 구운흙을 비배관리에 리용하자는것이였다. 그의 말에 일군들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일반적으로 구운흙은 지력을 높이는데 쓰인다.

의문을 가지는 그들을 보면서 대대장은 그 리유를 설명해주었다. 구운흙을 김이 발생하는 시기에 일정한 두께로 포전에 뿌려주면 김을 잡을수 있다는것, 또한 구운흙에는 잡풀씨나 뿌리, 병원성미생물같은것이 없기때문에 먹이풀판에 뿌려주면 여러가지 병을 막을수 있다는것 그리고 토양을 덮어주므로 토양물기날기를 막아 가물을 이겨낼수 있게 한다는것 등…

과학기술적요구가 안받침된 그의 의견을 모두가 지지해나섰다. 비배관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는 방도가 명백해졌다.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구운흙생산을 앞세웠다. 구운흙원료는 찰흙이여야 하는데 대대주변에는 이런것이 많았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을 총집중하여 필요한 흙을 실어들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부 로력으로 검불이나 강냉이뿌리같은것을 모아들여 구운흙생산을 위한 땔감보장을 맡게 하였다. 또한 뜨락또르운전수가 수리정비를 진행하면서 흙구이로를 관리하도록 로력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구운흙이 생산되는 족족 포전에 뿌려주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내밀었다. 그들은 들끓는 현장에 몸을 푹 잠그고 구운흙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뿌려주도록 앞장에서 돌격대원들을 이끌어나갔다.

세포등판의 영예로운 개척자라는 긍지를 안고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은 무성해질 먹이풀판을 그려보며 비배관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이렇게 구운흙을 비배관리에 적극 리용한 결과 포전마다 흐뭇한 먹이풀작황이 펼쳐질수 있었다.

풀판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인민봉사총국돌격대에서—

독자의 편지

우리 군대가 제일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한 인민군군인의 소행을 꼭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얼마전 혜산시 혜신초급중학교에 다니는 저의 딸 김효은은 압록강가에 나갔다가 그만 사품치는 물살에 휘말려들어갔습니다.

순간에 벌어진 일이여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쩔줄을 모르고있을 때 주저없이 물에 뛰여드는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저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 그는 희생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효은이를 강기슭에로 떠밀어올려놓고는 그만 세찬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이때 한 녀인이 다급히 달려와 내밀어준 장대기를 가까스로 잡고 기슭에 닿은 그는 너무나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이날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저마다 우리 군대가 다르다고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고 압록강기슭으로 뛰여갔을 때 그 군인은 어데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며칠후에 저는 일군들로부터 그 군인이 바로 조선인민군 김성국소속구분대의 김일진동무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렇듯 훌륭한 소행을 발휘하고도 《저야 인민군대가 아닙니까.》 하고 흔연히 말하는 그 군인앞에서 저는 우리 군대가 제일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인민군대를 더 적극 원호하겠습니다.

혜산시 혜신동 2인민반 김경옥

주요대상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

함흥시 동흥산구역종합식당 일군들과 종업원들

창조와 혁신으로 끓어번지는 대건설전투장들에서는 돌격대원들의 위훈에 찬 투쟁소식과 함께 지원자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도 끝없이 꽃펴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의 삶이 보람있는것으로 되자면 영생하는 집단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는바가 있고 남기는것이 있어야 합니다.》

함흥시 동흥산구역종합식당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10여년동안 주요대상건설장들을 찾고찾아 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였다.

지난 기간 봉사활동을 잘해온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할수 없었다. 박명희, 리명옥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할것을 결심하였다. 일군들은 종합식당아래 모든 식당의 종업원들이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게 하였다.

10여년전 어느날 양지강냉이국수집 책임자 리혜영동무를 비롯한 봉사자들은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삼지연군을 더 잘 꾸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동흥산구역돌격대원들을 찾아갔다. 건설장에서 받은 이들의 충격은 컸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는 돌격대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비추어볼 때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리혜영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은 축산기지를 확장하여 많은 돼지를 길러 손님들에 대한 봉사도 더 잘하고 지원사업도 통이 크게 해나갔다. 돌격대원들이 고산과수농장건설장으로 이동하였을 때에도 이곳 종업원들은 친어머니, 친누이된 심정으로 해마다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 고무해주군 하였다.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건설장에 보내줄 때면 온 종업원이 떨쳐나 명절처럼 흥성이였다. 때로는 어려움도 없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리혜영동무는 이렇게 호소하였다.

《어렵다고 이 길에서 주춤거린다면 어떻게 시대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산다고 말할수 있겠나요. 힘들어도 우리 돌격대원들을 힘껏 도웁시다.》

그의 이야기에 종업원들이 더욱 분발해나섰다. 리혜영동무는 김윤옥, 김명신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과 함께 밤을 지새며 성의껏 지원물자를 마련하였고 돌격대원들을 성심성의를 다해 지원하였다. 자기들보다 먼저 돌격대원들을 생각하며 어려운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머나먼 건설장에 찾아온 그들을 돌격대원들은 그 얼마나 뜨겁게 맞아주었던가.

후회가 없이 떳떳하게 살고 부끄러움이 없이 아름답게 사는것이 우리 시대 인간의 참된 삶이다.

이 일을 계기로 종합식당아래 모든 식당들에서 종업원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허선희, 서정순, 전영순동무를 비롯한 여러 식당책임자들과 종업원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지성어린 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주요대상건설장들을 끊임없이 찾고 또 찾았다.

종합식당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원료기지와 축산기지, 남새온실과 버섯생산기지를 보다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봉사사업을 잘해나가면서 돌격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 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날이 갈수록 고산과수농장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주요대상건설장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뿐만아니라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친혈육처럼 돌봐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한 이곳 종합식당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소행을 거듭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데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는 이런 아름다운 인간들이 많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조국의 전진은 더욱 빨라지는것 아니겠는가.

글 특파기자 박동석
사진 본사기자 신충혁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통하여 과학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영원한 태양의 빛발아래 더더욱 전변되는 두메산골

조국의 북변 자성군을 찾아서

자성군과 만포시를 이어주는 마전령을 넘어서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져내리기 시작하였다.

우리를 태운 뻐스가 수침천을 끼고 굽이굽이 뻗어간 차길을 따라 잣나무와 가래나무, 이깔나무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는 자작령마루에 올라섰을 때부터는 우박이 쏟아졌다. 해발 천여m나 되는 산들을 비롯한 높고낮은 산들이 대부분을 이루고있는 하늘아래 첫 동네에 들어선 손님들에게 자연이 자기 식의 인사를 하는것만 같았다. 북변의 외진 심심산골 압록강연안의 자성군에로의 기행은 이처럼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류다르게 시작되였다.

군소재지로 들어서니 번듯하게 뻗어나간 포장도로 량옆으로 푸르청청하게 자라고있는 들메나무와 오동나무며 특색있게 건설된 소층살림집들과 단층살림집들, 우아하면서도 장쾌하게 솟아오른 소년궁전이며 현대적미와 민족적특색이 살아나는 은덕원과 국수집, 문화회관 등 눈앞의 현실이 우리에게 높고낮은 산들을 배경으로 펼쳐진 산골군의 정갈하면서도 특유한 정서를 안겨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사회주의길을 개척하며 행복한 새 생활을 꽃피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4군6진의 설치와 함께 15세기 중엽에 생겨난 군은 이름그대로 성의 덕을 크게 입었다는 뜻에서 자성이라고 불리우게 되였다.

산이 너무도 많고 궁벽한 곳이여서 먼 옛날부터 사람 못살고장으로, 불모의 땅으로 버림받아왔던 고장, 나라없던 그 시절 살길을 찾아 떠나는 류랑민들의 구슬픈 노래소리와 화전민들의 거치른 한숨소리만 들려오던 이 땅에 광명의 봄빛이 스며든것은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차례나 여기 멀고 험한 자성땅을 찾으시여 몸소 운봉발전소터전을 잡아주시고 발전소건설과 군의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7(2008)년 1월 북방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성읍 내동혁명사적지를 찾으시여 사적지보존관리를 잘하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으며 군에서 농업생산을 부단히 늘여 군내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먼저 절세위인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새겨진 자성읍 내동혁명사적지를 돌아보았다.

내동혁명사적지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1920년과 1921년 가을 자성일대에 오시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적극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신 뜻깊은 력사의 고장이다. 이곳을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설을 잘한다고 치하해주시며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영광을 지닌 강사 류정금동무로부터 사적지에 대한 해설을 들을수록 자성땅인민들의 가슴속에 억년 변치 않을 사상정신적대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군의 앞날을 더욱 환히 열어주시던 절세위인의 자애로운 모습이 눈앞에 어려와 우리의 마음은 숭엄해졌다.

군의 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다음으로 들린 곳은 자성학생소년궁전이였다.

총건평이 5천여㎡나 되는 학생소년궁전은 5층짜리 본관과 체육관, 극장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학생소년들을 위한 과외교양기지였다. 하루에 400여명의 학생소년들이 미술, 무용, 서예소조실을 비롯한 수십개의 소조실과 배구, 롱구장들이 훌륭히 갖추어진 체육관에서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는 궁전의 규모도 놀라왔지만 모든 조건이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진 크고 멋있는 소년궁전이 이런 산골군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놀라움을 더해주었다. 바로 여기에도 후대들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었다. 궁전건설의 전과정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국가적인 조치도 취해주시고 완공되였을 때에는 뜨락또르와 승용차를 비롯한 수십종의 기재들과 악기들도 보내주시고 친히 궁전의 이름까지 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였다.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마음껏 재능을 꽃피워가는 학생소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우리는 비록 심심산골이나 외진 섬이라고 할지라도 후대들이 있는 곳이라면 내 조국의 그 어디에나 뜨겁게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가슴후더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이런 격정을 되새기며 우리는 살림집들과 각종 건물들이 줄지어서있는 읍거리에 나섰다. 도로의 량옆에 무성하게 자란 들메나무와 오동나무에서 풍겨오는 청초한 기운에 저도모르게 마음이 흥그러워지는데 그 심정을 들여다본듯 우리를 안내하는 군일군이 이렇게 말했다.

《산골군인 우리 자성땅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들메나무들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해합니다. 이 가로수들은 우리 고장의 하나의 풍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선군혁명령도의 머나먼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성땅을 지나게 되시였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읍거리의 풍경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성군에서 군소재지를 특색이 있으면서도 농촌군소재지답게 소박하고 알뜰하게 잘 꾸렸다고, 자성군소재지가 깨끗하게 정돈되였다고 과분한 치하를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성군에서 전반적인 국토관리사업이 잘되고있다고, 마을꾸리기를 아주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때 당시에는 가로수들이 오늘처럼 거목이 아니였고 도로도 포장되여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마을과 산천을 제손으로 꾸려나가고있는 군인민들의 깨끗한 량심과 애국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처럼 과분한 치하를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에 군안의 전체 일군들과 인민들은 얼마나 크나큰 감격으로 설레였던가. 그때로부터 군의 면모는 더욱 몰라보게 달라졌다.

자기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이 살아나게 꾸린 로라스케트장에서 울려나오는 아이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은덕원과 국수집을 비롯한 즐비하게 늘어선 봉사망들에 비껴있는 인민들의 밝은 모습,

그런가하면 번듯하게 일떠선 군도서관에서는 군안의 일군들로부터 교원, 대학생들은 물론 초급, 고급중학교학생들과 로동자들도 콤퓨터 등을 리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대과학기술과 풍부한 지식들을 소유해가고있었다.

읍에서 60여리 떨어진 운봉지구에는 또 얼마나 벅찬 현실이 펼쳐져있었던가.

단 몇해사이에 종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사회주의선경을 노래하며 수십동이나 새로 일떠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설레이게 하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는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한 간장, 된장, 기름을 비롯한 기초식품들과 비누, 위생종이, 학습장 등 생활용품들이 정상적으로 군인민들에게 공급된다니 듣고 보는 모든것에 대해 감탄이 절로 나왔다. 풍족한 속에서 이루어진 전변이라면 이처럼 환희롭지 못할것이다.

무수한 산발들이 병풍처럼 둘러막혀있고 도소재지에서 수백리 떨어져있는 심심산골에서 세멘트 1㎏, 강재 1㎏을 얻자고 하여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자성땅사람들의 가슴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못지 않게 자부하는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는 강계정신을 창조한 자강도사람들이며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창조하여야 한다는 자력갱생의 정신이다. 자기 고장, 자기 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화를 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되게 하고 어제와 오늘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자랑찬 결실을 가져오게 하였다.

군을 더욱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대오의 앞장에는 언제나 군책임일군들이 서있다. 이들의 머리속에서는 군의 밝은 래일이 끝없이 설계되고있다.

자연수를 리용한 수원지개건공사, 운봉지구의 학교를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공장들의 개건, 읍거리의 가로등 설치…

우리에게는 결코 이것이 먼 앞날의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것이라면 언제나 머리를 쓰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일군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사회주의만복을 꽃피워야 한다는 만만한 야심과 배짱을 가진 선구자들이 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인민이 있기에 그것은 벌써 희한한 현실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있는듯 하였다.

가는 곳마다에서, 만나본 사람들마다에게서 받아안게 되는 소박하면서도 알뜰한 일본새,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는 새것에 대한 열렬한 지향에서 더욱 소리치며 잘살 군의 래일이 멀지 않았음을 가슴벅차게 느끼게 되였다.

오랜 세월 사람 못살 고장으로, 불모의 땅으로 불리웠던 이 고장이 로동당의 덕, 자력갱생의 덕으로 나날이 흥하는 선군시대 청춘고장으로 전변되고있다.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높이 울려퍼질 휘황한 래일을 향해 더욱 비약하며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 고장의 자원으로 더더욱 젊어지는 북방의 두메산골, 정녕 떠나고싶지 않고 정이 드는 고장이였다.

김 성 민

각지에서 보내여온 글작품들을 보고

시작은 어디고 그 끝은 어디

각지의 독자들이 본사편집국앞으로 전설같이 꽃펴나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을 격조높이 노래한 글작품들을 계속 보내여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위대한 투쟁, 위대한 시대의 산물이다.》

순천시에 사는 김순영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끊임없이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자욱자욱에 받들려 날마다, 시간마다 새라새로운 화폭들이 펼쳐지고있다고 하면서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고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자기들이 받아안는 사랑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잘 알고 당의 충직한 아들딸들로 억세게 자라나기를 절절히 호소하고싶은 마음에서 시를 썼습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안고 그가 창작하여 보내여온 시가 바로 《축복받은 아이들》이다.

무엇부터 볼가 어디로 먼저 갈가
바다가의 호화로운 야영소
대동강기슭의 행복의 요람
계절을 모르는 물놀이장과 빙상장
궁전같은 아동병원, 번쩍거리는 전자오락관
흰눈덮인 마식령스키장
10년맞잡이로 일떠선 희한한 광경들
꿈이 아닌 현실
통채로 아이들것이 되였구나
…
하늘땅 열백번 변한대도 순결한 마음안고
원수님 바라시는 강성조선의 훌륭한 역군이 되여
김일성조선,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만방에 빛내이라 끝없이 떨쳐가라

린산군에 사는 리현우는 위대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로 훌륭히 변모되는 고산과수농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가사 《철령아래 사과꽃풍경》을 보내여왔다. 그는 가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사과꽃풍경에 우리 인민이 누려갈 행복넘친 래일이 비껴있다고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덕천시에 살고있는 정윤화는 평양시양로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에 접하고 격정을 누를수 없었다고 하면서 시 《청춘으로 산다오》를 창작하여 보내여왔다.

묻지 마오 묻지 마오 내 나이를
귀밑머리 희여져도
포연탄우 헤치던 전화의 시절에 산다오
그 정신으로 산다오
어제도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는
그 품이 하도 좋아
노래 절로 나온다오 청춘으로 산다오
…

정녕 인민의 마음속격정이 그대로 시어가 된 글작품들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절세위인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력사를 전하는 행복의 노래, 시대의 메아리인것이다.

조 향 미

세계패권을 향하여 더 높이 솟구치라

2015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박정주선수

지난 6월 7일, 뿔스까에서 진행되고있던 2015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장에서는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람홍색공화국기가 높이 올랐다.

우승의 시상대에서 3개의 금메달을 번쩍이며 람홍색공화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하는 우리 나라의 박정주선수, 어머니조국에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 그 시각 그의 가슴속에서는 무한한 행복감이 차고넘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인들은 백두의 넋과 기상을 지닌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우리 식의 위력한 경기전법으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련전련승하여야 합니다.》

2015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40여개 나라와 지역의 남, 녀선수 230여명이 참가하였다.

해마다 진행되는 이 대회는 세계청년력기계의 패권을 다투는 동시에 매개 나라들의 력기발전수준과 전망을 보여주는 계기인것으로 하여 매우 의의있는 경기무대로 되고있다.

4.25체육단의 박정주선수가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가 출전한 남자 62㎏급 경기에는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준 우즈베끼스딴, 뛰르끼예, 꼴롬비아 등의 선수 20여명이 참가하였다.

7일 오후 3시경, 2013년 세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와 제2차 청소년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박정주선수가 자신만만하게 경기장에 나섰다.

끌어올리기 첫번째들기에서 120㎏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아쉽게도 두번째들기에서 124㎏을 실패한것으로 하여 다른 나라 선수들의 기록보다 떨어지게 되였다.

이제 또 실수하면 금메달을 생각할수 없었다. 세번째들기무게로 또다시 신청한 124㎏,

그때를 돌이켜보며 리철남감독은 말하였다.

《우리는 구간봉을 억세게 틀어잡는 박정주선수를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최후결전장에 나선 병사의 자세그대로였습니다. 번쩍이는 그의 눈빛은 자기가 들어올려야 할 무게를 단순한 중량물의 무게가 아니라 세계우로 받들어올려야 할 조국의 명예로 심장에 새기고있음을 말해주고있었습니다.》

박정주선수는 이렇게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이 있는데 두려울것이 무엇이랴 하고 생각하니 온몸에 무적의 힘이 용솟음쳤다.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이 세상 그 어느 체육인들도 향유할수 없는 특전을 다 받아안으며 마음껏 체육기술을 련마하여온 선군조선체육인의 배심은 이렇게 든든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장약된 필승의 신심, 우주도 들어올리고야말 무서운 힘에 떠받들려 구간봉은 힘있게 솟구쳤다.

장내에는 요란한 환성과 박수갈채가 터졌다. 이로써 박정주선수는 끌어올리기종목에서 단연 우승하였다.

이어 추켜올리기경기 두번째들기에서 그 누구도 들지 못한 156㎏을 단숨에 들어올렸다. 하여 박정주선수는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1위를 함으로써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아시아력기련맹 부위원장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조선의 박정주선수가 경기를 정말 잘했다, 아시아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여러 나라의 감독들도 찾아와 확실히 조선선수들의 정신상태는 놀랄만 하다, 선수들의 경기도덕품성은 물론이고 외모까지도 우리 선수들보다 낫다, 우리는 조선선수들의 모든것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력기경기에서도 감독이 전술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데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박정주선수의 몸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리철남감독은 끌어올리기에서 전술을 바꾸었다. 감독의 전술적의도는 다른 나라 감독들의 경기지휘에 혼란을 조성하였다.

한편 감독은 추켜올리기에서 박정주선수가 특기를 잘 살리면서 공격적인 경기운영으로 첫번째들기에서 153㎏, 두번째들기에서 156㎏이라는 높은 기록으로 다른 선수들을 위압하도록 지휘를 잘하였다.

시작부터 우리 선수의 변화무쌍한 경기운영에 완전히 빠져든 다른 나라 감독들과 선수들은 심리적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선수에게 도전은 하였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결과 추켜올리기경기는 박정주선수의 두번째들기기록과 함께 승부가 확정되게 되였다.

이것은 평상시훈련에서 박정주선수를 어떤 경기정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능란한 지휘로 경기를 승리에로 이끌어간 리철남감독의 고심어린 탐구와 열정, 완강한 실천력의 결과인것이다.

뜻깊은 올해의 국제력기경기에서 우리 나라의 첫 금메달을 쟁취한 박정주선수는 말하였다.

《평범한 농장원가정의 자식을 손잡아 이끌어주고 내세워주었으며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로 키워준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대한 보답의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어이 세계패권자로 자라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더 큰 승리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세계패권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박정주선수와 같이 온넋을 바쳐 조국을 빛내이려는 미더운 체육선수들의 애국의 심장, 힘찬 발걸음에 떠받들려 우리 조국은 멀지 않은 앞날에 반드시 세계를 압도하며 체육강국의 긍지높은 령마루로 솟구쳐오를것이다.

본사기자 전철호

혁명적랑만과 열정을 북돋아주는 대중체육활동으로 흥성이고있다. —신의주항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첨단해양기술개발구에 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경제개발구에는 공업, 농업, 관광, 첨단기술개발구 등과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들이 속한다.

첨단기술개발구는 교육 및 과학연구기능, 첨단제품생산 및 봉사기능 등이 결합된 현대적인 과학기술산업지구이다.

첨단기술개발구에는 정보, 나노, 생물, 우주, 해양기술개발구 등이 속한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첨단해양기술개발구를 적극 창설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21세기 첨단기술의 하나인 첨단해양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첨단해양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첨단해양기술개발구창설사업이 국가의 중요한 발전전략으로 되고있다.

첨단해양기술개발구를 창설할수 있는 지역은 해양자원이 풍부해야 하며 첨단해양과학기술부문의 연구력량과 현장의 기술인재를 양성할수 있는 준비가 되여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양산업과 그 련관산업의 기초가 있고 과학기술성과를 산업화할수 있는 조건이 성숙된 지역이여야 한다.

첨단해양기술개발구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의 기여몫이 적지 않다. 국가중점해양연구기지를 건설하고 여기에 해당 교육기관과 해양과학기술연구기관, 연구기관들의 현장연구실험실과 생산기지를 꾸리고 이것을 위주로 하여 첨단해양기술연구와 도입, 기술보급, 다른 나라와의 공동연구를 진행할수 있으며 첨단해양기술인재를 육성하며 개발구일군들의 기술기능수준도 높일수 있다.

첨단해양기술개발구에서는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이 많은 몫을 차지한다.

첨단해양산업에는 바다양식용우량품종의 육성과 공장화된 양식업, 해양기능성식품업과 약품업, 바다물담수화와 해수화학공업, 해양공학 및 환경보호설비제조업 등이 속한다. 첨단해양산업은 실리가 크고 바다에서 원료와 동력, 연료를 값눅게 얻어 리용하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경제적리익을 주고있다.

세계적으로 첨단해양기술개발구는 경제개발구의 한 류형으로서 투자가들의 경제활동에서 특혜를 보장하고있으며 첨단기술투자몫이 늘어나고있다.

개발구에서 연구개발하여 도입된 첨단해양과학기술성과를 전국에 널리 보급함으로써 경제전반을 지식경제로 전변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첨단해양기술개발구는 또한 과학기술, 해양산업지도기관 등이 협동하여 관리할수 있으며 첨단해양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해양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박사 박진길

몇가지 나무병과 피해막이방법

나무모마름병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의 어린 모단계에서 병원균에 의해 발생하며 양묘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병이다.

이 병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양묘장에서 물빼기대책을 세우고 씨붙임을 기술지표대로 정확히 하여야 한다.

질소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말며 린비료와 카리비료를 섞어주어야 한다.

포르말린 0.15%액에 씨앗을 2시간동안 담근 다음 건져서 그늘에서 말리워 심는다.

물 6~12L에 포르말린을 40~50㎖정도 풀어서 땅 1㎡에 고루 뿌려 토양소독을 한 다음 1주일후에 씨붙임을 한다.

병든 나무모는 제때에 뽑아서 불태우고 그 자리에 1~2% 보르도액을 1㎡당 5~10L 뿌리거나 소석회를 100~200g정도 뿌려주고 걸흙과 잘 섞어준다.

소나무가지마름병

소나무류와 전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등의 가지와 줄기에서 발생한다.

병든 나무에서는 3월-5월에 몇개 가지의 잎이 붉은 밤색을 띠면서 말라죽으며 심한 경우에는 병원균이 나무줄기에까지 침입하여 나무전체가 죽게 된다.

이 병에 걸린 나무가지의 껍질밑에서 검은색의 작은 점들이 나타나며 이것이 점차 성숙하여 5월경부터는 껍질을 뚫고나온다. 비가 오거나 습한 조건에서 이 도드리(미성숙자낭반)는 커지면서 터지고 여기에서 포자가 날려 새로운 전염을 일으킨다.

소나무가지마름병은 심한 가물이나 겨울기간의 기온상승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병의 피해를 막자면 나무를 너무 배게 심지 말아야 하며 사이베기를 제때에 해야 한다. 장마철전에 죽은 가지와 나무를 베여 불태워버려야 한다.

소나무초리마름병

소나무류의 잎과 어린 싹, 어린 초리에서 병원균에 의해 발생한다. 어린나무보다는 20~30년생의 큰나무에서 피해가 나타나며 세력이 좋은 나무에서는 약해진 가지에서만 말라죽는 현상이 생긴다.

소나무초리마름병은 여러가지 환경적요인에 의해 수세가 약해지면 심하게 발생하고 특히 솔잎혹파리의 피해와 겹치여 소나무들을 대량적으로 죽게 하는 기본원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이 병의 피해를 막자면 병든 락엽을 모아 태우거나 땅에 묻어야 한다. 6월 중순—8월 중순에 50%베노밀수화제 1000배희석액 또는 75%만코쩨브수화제 600배희석액을 두주간격으로 2~3번 분무한다. 숲갓층의 아래부분에서 심하게 발생하므로 가지솎음과 풀베기를 제때에 하여 통풍이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과학원 산림보호학연구소 실장 정철룡

앞으로 진행되는 국제축구경기 조구성

최근 아시아축구련맹에서 2016년 아시아축구련맹 19살미만 선수권대회와 2016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 참가자격을 위한 예선경기 조구성추첨식들이 각각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모두 43개 나라와 지역팀들이 참가하는 2016년 아시아축구련맹 19살미만 선수권대회 예선경기는 서부지역(1조부터 6조까지)과 동부지역(7조부터 10조까지)으로 나뉘여 조별련맹전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 나라 팀은 중국, 말레이시아, 마카오팀과 함께 9조에 속하였다.

조별련맹전에서 1위를 하는 10개 팀과 2위를 한 팀들중에서 성적이 높은 5개 팀이 본선경기참가자격을 받게 된다.

바레인팀은 본선경기주최국팀인것으로 하여 자동적으로 참가자격을 받는다.

2016년 아시아축구련맹 19살미만 선수권대회 예선경기는 올해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이 예선경기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모두 45개 나라와 지역팀들이 참가한다.

예선경기는 역시 서부지역(1조부터 6조까지)과 동부지역(7조부터 11조까지)으로 나뉘여 조별련맹전방식으로 진행된다.

매 조에서 1위를 한 11개 팀과 2위팀들중에서 성적이 높은 4개 팀이 본선경기에 진출한다. 본선경기주최국팀인 인디아팀은 자동적으로 참가자격을 받는다.

우리 나라 팀은 타이, 싱가포르, 캄보쟈팀과 함께 8조에 속하였다.

본사기자

국제정구경기규칙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구는 몸을 단련하는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경식정구경기때 쳐넣기가 득점으로 되는 경우는 공이 상대편의 쳐넣기구역에 정확히 들어간것을 받아치지 못하였을 때,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단식경기에서 상대편선수의 몸이나 복장, 복식경기에서 받아치기편선수의 몸, 복장에 맞거나 손으로 잡았을 때, 공을 받아치기선수가 받아쳐 상대편구역에 보내지 못했을 때, 경기장에 설치한 고정시설 혹은 다른 대상에 맞고 선밖으로 나갔을 때, 공이 한번 반발된 다음 치지 못하였을 때, 공을 받아칠 때 채로 2번 혹은 그이상 쳤을 때와 밀었을 때, 공이 그물을 넘어가기 전에 쳤을 때, 공을 채로 던져서 받아치기하였을 때이다.

쳐넣기를 제정된 위치에서 하지 않았을 때, 두알의 쳐넣기가 다 실수하였을 때, 규정된 쳐넣기동작으로 하지 않고 걷거나 달리면서 쳐넣기위치를 변경하였을 때, 쳐넣기한 공이 쳐넣기구역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쳐넣기를 시작하여 끝나기 전에 뒤선 또는 옆선들을 밟았을 때, 쳐넣기한 공이 그물, 띠, 줄에 맞고 쳐넣기구역밖에 떨어졌을 때, 쳐넣기선수가 공을 올려던지고 채로 치려다가 치지 못하여 공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는 쳐넣기가 실점으로 된다.

이밖에도 경식정구경기중에 받아치기선수의 몸, 채, 복장 등이 그물, 그물대, 심판대를 다치거나 상대편구역에 침범했을 때, 날아오는 공을 쳤을 때 그 공이 지지대밖의 그물에 맞고 들어갔을 때에도 받아치기가 실점으로 된다.

정확한 치기는 공이 그물, 띠, 줄을 다치고 상대편구역에 들어갔을 때, 상대편선수가 쳐넣기를 했거나 받아치기, 치기한 공이 바람 또는 회전의 영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넘어갈 때 그 공을 칠 차례인 선수가 몸이나 복장, 채로 그물과 그물대, 상대편구역을 다치지 않으면서 공을 쳤을 때, 치기를 한 공이 그물대옆 또는 우로 돌아서 상대편구역에 들어가거나 그물대와 그물을 다치면서 들어갔을 때, 치기한 공이 날아가는 새나 짐승에 맞고 들어갔을 때 등이 될수 있다.

선수는 경기과정에 두개의 채를 사용할수 없으며 다만 채가 파손되였거나 줄이 끊어졌을 때 다른 채로 바꾸어쓸수 있다.

한 선수가 경기과정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편의 공치기를 방해하였다면 방해받은 선수에게 한점을 주거나 경기를 중지시키고 다시 하여야 하며 경기진행과정에 경기장선에 맞은 모든 공은 경기장안에 들어온 공으로 한다.

조선체육대학 교원 리해성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해나가는 불패의 당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공산당에서는 경축모임이, 우간다 마케레레종합대학에서는 경축집회와 사진전시회가, 나이제리아 잠파라주에서는 도서전시회와 영화감상회가, 인도네시아 알 아라비야무역회사에서는 영화감상회가 8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다. 또한 선군의 기치따라 날로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일심단결로 승리떨쳐온 내 조국》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인민의 당으로 건설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방해책동속에서도 조선식사회주의를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갈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제1비서로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다.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신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신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위용떨쳐가고있다, 이것은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의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오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은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인도네시아 알 아라비야무역회사 사장은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일성**주석을 중심으로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당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을뿐아니라 조선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고 하면서 대대로 위대한 수령들을 모신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고 말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이란 다이야몬드회사, 아이이아이회사, 이더블유회사에서 최근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다이야몬드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더욱 훌륭히 꾸려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소개하는 영화를 보면서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시책 특히 후대사랑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떠드는 조선의 《인권문제》란 완전한 허위날조이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을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미국의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을뿐아니라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아이이아이회사와 이더블유회사 부사장들은 마식령스키장은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뜻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훌륭히 꾸려졌다, 앞으로 마식령스키장에 꼭 가보겠다고 언급하였다.

성명,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64년 6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였다. 이날은 조선로동당과 조선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자신께서 **김일성**주석을 가까이에서 보좌해드리고 주석의 사업부담을 덜어드릴수 있게 된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였다.

성명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당안에 수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신데 대하여 격찬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로선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당시는 당건설 그리고 조선식사회주의 건설과 수호에서 결정적인 시기였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해마다 6월 19일을 위대한 혁명적명절로 경축하고있는것이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에짚트, 가나정계인사가 1일과 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야흐야 자카리야 헤이룰라는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오늘 조선로동당은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면서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고있으며 세계 진보적정당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빛을 뿌리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 자주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기에 조선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은 온갖 적대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힘차게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고계시기에 조선은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나라로 위용을 떨치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를 진두에 모신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위업을 선도하는 전위대로서의 영예를 계속 고수해나갈것이다.

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 죠지 라우쏜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의 70년력사에 빛나는 장으로 아로새겨진 **김정일**각하의 당령도사는 조선을 세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운 위인의 자랑찬 력사이다.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여오시는 나날에 쌓아올리신 거룩한 업적은 그이의 존함과 더불어 인류의 심장속에 길이 빛날것이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이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출판보도물들 글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였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 5일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옹근 한면에 편집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당을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간주하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사상적순결체로,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며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당으로 건설하시였다.

그이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세계적인 정치풍파속에서도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온 사회를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전변시켰으며 평범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변함없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향도해나가는 불패의 당으로 위력떨칠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신문 《인터내셔널 메디아》 12일부는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된것은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에 기초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으로 일관시켜왔기때문이다.

지난 수십년동안 조선로동당은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를 실시하고 국가자금으로 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조선은 이미 오래전에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다. 이러한 현실은 조선의 수령들께서 지니신 투철한 인민관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수리아신문 《티슈린》 12일부는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의 전체 군대와 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령도자의 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 **김정은**각하는 빛나는 사상적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을 지니신것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분이시다. 그이께서 계시기에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것이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남아프리카, 브라질단체가 인터네트홈페지에 특집하였다.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는 9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사상의 힘은 무한대하다》 등 제목의 글들을 올렸다.

글들은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령도사를 높이 칭송하였다. 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수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며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당으로, 선군혁명위업을 향도해나가는 강위력한 정치적력량으로 건설하신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는 8일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글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사상을 조선로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시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조직사상적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신데 대하여,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로 온 사회를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고 당이 광범한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해나가는 불패의 당으로 위용떨치게 하신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당건설분야에 쌓으신 업적은 끝없이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글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재앙을 청하는 어리석은짓을 하지 말라

얼마전 일본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초청된 헌법학자들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관련법개정이 헌법위반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해나섰다. 그들은 그 근거로 헌법 제9조가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에 합법성을 부여하고있지 않다는것,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확대가 나라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할수 있다는것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민당내에서도 안전보장관련법개정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있다.

공연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실지 안전보장관련법이 개정되는 경우 현행헌법은 있으나마나한것으로 되여 일본인들이 어쩔수없이 전쟁에 말려들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대하는 현 일본집권세력의 태도이다. 그들은 헌법학자들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안전보장관련법개정안이 《론리적정합성, 법적안정성이 보장되여있》기때문에 헌법에 부합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다면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그들은 이번에 헌법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본최고재판소가 1959년에 자위권행사를 《국가의 고유한 권능을 행사하는것》이라고 한 《스나가와판결》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일미안보조약에 기초하고있는 미군주둔이 헌법에 부합되는가 하는것만을 따졌을뿐 《집단적자위권》행사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때문에 력대 일본집권자들도 형식상으로나마 자위권행사가 일본방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초월하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해석을 견지해왔다.

일본집권세력의 주장은 그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다. 그들이 안전보장관련법개정이 《방위》를 위한것이라느니, 그것때문에 일본이 전쟁에 말려드는 일은 없을것이라느니 뭐니 하지만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세상에는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다. 일본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적은 있어도 일본을 침략하거나 위협한 나라는 있어본적도 없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일본이 순수 방위를 위한것이라면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확대하거나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정세분석가들도 실질적으로 일본의 국가안전에 위험이 조성된것이 없는데 무엇때문에 현 집권세력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 안전보장관련법개정에 그처럼 집요하게 매여달리는가고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어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며 전략적목표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여왔으며 그 결과 《자위대》는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완전히 전환되였다.

어벌이 커질대로 커진 일본반동들은 본격적인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려 하고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이 그것을 제약하고있다.

일본의 현행헌법은 《집단적자위권》행사와 전쟁참가를 금지하고있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일본반동들은 이런저런 구실과 조건을 내들고 해외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여왔다. 그러나 감히 《집단적자위권》행사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였다.

오늘에 와서 일본반동들은 그것을 안전보장관련법개정을 통하여 실현하려 하고있다. 바로 그래서 이번 법안에 그 누구에 대한 군사적지원과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확대에 대해 쪼아박아넣은것이다.

속심은 딴데 있지 않다. 일본주변에만 국한되였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자는것이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 안전보장관련법이 개정되면 일본인들은 싫든좋든 전쟁에 뛰여들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예측이나 가설이 아니다.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개정은 시간문제이다. 일본반동들은 굴레를 벗은 군국주의마차에 날개를 달고 아시아정복의 길에 뛰여들려 하고있다. 이미 그 조건은 성숙되였다.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사태발전이다.

과거에 침략과 전쟁을 일삼으며 아시아를 란도질하고 피비린 살륙에 미쳐날뛴 일본이 또다시 침략의 길에 뛰여들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르겠는가 하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일본반동들은 오산하고있다.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변하였다. 지금은 20세기 전반기가 아니라 21세기이다. 아시아는 어제날의 아시아가 아니다.

아시아인민들은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일본에 있어서 해외침략은 곧 망국과 파멸의 길이다. 일본의 현 집권세력은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본반동들에게 다시 경고한다.

일본인들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라.

리 학 남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안정을 위하여

로씨야에서

요격미싸일 시험발사

로씨야항공우주방어군이 최근 미싸일방위체계 단거리요격미싸일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요격미싸일은 제정된 시간내에 가상목표를 정확히 소멸하였다. 이번 시험발사의 목적은 항공우주방어군에 배속되여있는 미싸일방위체계의 전술기술적성능을 확인하는데 있었다. 9일 이 나라 국방성은 미싸일방위체계가 다탄두를 탑재한 새 세대의 전략탄도미싸일도 능히 요격할수 있다고 밝혔다.

운반로케트 발사

로씨야에서 최근 운반로케트 《쏘유즈-2.1a》를 쏴올렸다.

뽈레쎄쯔크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된 운반로케트에는 우주기구가 탑재되여있었다. 5일 항공우주방어군 대변인이 밝혔다.

반잠훈련

로씨야북함대의 반잠훈련이 최근 바렌쯔해에서 진행되였다. 훈련에는 북함대의 소형반잠함들과 원자력 및 디젤잠수함들이 동원되였다. 훈련과정에 북함대소속 군함들은 잠수함탐색, 추적, 반잠비행대와의 협동작전 등을 련마하였다. 9일 북함대 공보부가 밝혔다.

반테로작전

로씨야의 다게스딴공화국에서 최근 반테로작전이 진행되였다. 작전과정에 10여년간 숨어있으면서 법보호기관 일군들에 대한 살인, 강탈 등 각종 범죄를 감행한 무장악당두목이 처단되였다. 따쓰통신이 이에 대해 밝혔다.

일본의 비법적인 고래잡이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비법적인 고래잡이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은 올해에도 110여마리의 고래를 잡을것을 획책하고있다 한다.

지난해 3월 국제사법재판소가 남극수역에서 《과학연구》목적의 고래잡이를 금지시킨 이후에도 일본은 교묘한 방법으로 태평양의 서북부수역에서 고래잡이를 계속하고있어 여론의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다.

자연피해

산사태

꼴롬비아의 까우까주에서 12일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에 의한 산사태로 5명의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으며 도로들에 돌과 진흙이 쌓여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총피해자수는 7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한편 네팔의 동북부지역에서도 11일 무더기비에 의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났다.

6개 마을이 사태속에 묻히여 21명이 죽고 27명이 행방불명되였다. 현지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산불피해

로씨야의 하까씨야공화국에서 최근 산불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산불은 주민지대들로 계속 번져졌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32명으로 늘어나고 1 215채의 살림집과 1 598동의 건물이 불타버렸다. 따쓰통신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래를 대표하는 풍력에네르기

얼마전 세계풍력에네르기리사회가 예측한데 의하면 세계적인 풍력발전능력이 2020년시점에서 현재의 약 2배인 6억 6 610만kW로 될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대신 풍력, 지열, 태양열 등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하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해지고있다. 특히 원천이 영원할뿐아니라 끊임없이 재생되며 환경오염이 없는것으로 하여 풍력에네르기는 미래를 대표하는 에네르기의 하나로 주목되고있다.

브라질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에서 풍력에네르기에 대한 수요가 화석연료에 의한 에네르기수요보다 더 높아지고있는 사실만 놓고보아도 풍력에네르기를 리용하려는 세계의 지향과 요구를 잘 알수 있다.

하다면 미래를 대표하는 풍력에네르기는 언제부터 인간생활에 리용되게 되였는가.

인류가 풍력을 리용하여온 력사는 매우 오래다.

수천년전부터 사람들은 바람의 힘으로 달리는 돛배를 만들어 바다를 항행하였으며 중세기에는 풍차를 만들어 양수와 제분에 리용하였다. 19세기말에 이르러 풍차에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수요를 보장하려는 시도들이 나오면서부터 풍력은 발전용으로 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개발된 풍력발전기들은 날개의 재료와 제작 및 조종기술이 낮은 수준이였지만 그후의 풍력에네르기개발을 위한 중요한 과학기술적기초로 되였다. 그러던것이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부터 풍력을 리용하는 기계들이 덜 쓰이게 되였다.

20세기 70년대에 도래한 석유위기는 풍력에네르기의 리용을 촉진하는 계기로 되였다.

1970년대에 또 한차례의 중동전쟁이 일어난 후 아랍나라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지원하는 서방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한고리로 자기 수중에 장악된 석유자원의 수출을 금지하는 동시에 석유값을 올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세계는 중동전쟁의 후과로 석유위기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이때부터 풍력에네르기를 비롯한 자연에네르기가 인간생활에 다시 쓰이게 되면서 풍차의 리용도 활발해졌다.

날이 감에 따라 풍력발전기술은 에네르기변환효률을 높이고 생산되는 전기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발전하였다. 그 과정에 풍력발전기의 구조와 동작특성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년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풍력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있다. 2011년에 오스트리아에서 록색전력법이 채택되였다. 록색전력법에는 2020년까지 풍력을 리용한 전력생산량을 늘일데 대한 조항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나라에서는 풍력발전기를 대대적으로 설치하고있다. 이 나라의 풍력에네르기협회가 예측한데 의하면 2030년에 가서 풍력을 리용한 전력생산량이 국내소비전력량의 24%에까지 도달할것이라고 한다.

인디아에서도 최근년간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에서 놀랄만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여론들은 이 나라가 부족되는 전력수요를 풍력에네르기와 같은 자연에네르기에서 찾을데 대한 전략을 세우고 투자를 확대하고있는 조건에서 머지않아 세계적인 풍력발전국으로 될 전망이라고 평하고있다.

지금 일반적으로 리용되고있는 수평축풍력발전기는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실례로 풍력발전소들에서 풍력타빈들을 설치할 때 안전성을 고려하여 호상 간격을 비교적 넓게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면적에 설치할수 있는 풍력발전기의 대수는 제한되게 된다. 이외에도 회전하는 날개에 새들이 부딪칠수 있는 등 불합리한 점들을 안고있다. 이런데로부터 세계적으로 성능높은 풍력발전기들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얼마전 에스빠냐에서 새형의 풍력발전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흥미있는것은 새로 개발한 이 풍력발전기에는 풍력타빈이 없는것이다. 이 풍력발전기는 회리도를 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공기가 류동할 때 물체의 주위로 회리현상이 나타난다. 새형의 풍력발전기는 이것을 무진장한 에네르기원천으로 리용한다. 이 풍력발전기의 발전장치는 내부에 설치되여있다.

회리형태의 공기흐름과 맞다들면 섬유유리와 탄소섬유로 구성된 동체가 진동하게 된다.

이때 발생한 서로 다른 방향의 진동은 풍력발전기밑부분에 설치되여있는 발전기를 움직인다. 결과 운동에네르기가 전기에네르기로 전환된다. 이것이 이 풍력발전기의 원리이다.

이 풍력발전기는 같은 면적에 설치할수 있는 대수가 수평축풍력발전기보다 두배나 된다고 한다. 또한 바람이 부는 곳이라면 임의의 장소에 설치할수 있으며 그 제조원가도 일반풍력발전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환경오염이 없고 자원에 구애되지 않는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림 원

제25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 진행

제25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14일과 15일 남아프리카의 요한네스부르그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동맹성원국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대륙의 평화와 안전보장, 경제발전과 지역적통합에 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아프리카의 장래발전을 위한 로정도를 밝힌 2063년안건을 리행하며 대륙적인 자유무역지대창설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심상치 않게 흐르는 발칸반도정세

발칸반도의 일부 나라들에서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고있어 정세분석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현재 마께도니아에서는 현 정부세력과 야당세력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그 어느때보다도 표면화되고있다.

얼마전 수도 쓰꼬삐예에서 반정부시위가 벌어졌다. 야당세력들을 지지하여 일어난 시위에서 수천명의 참가자들은 수상 니꼴라 그루엡스끼가 사임할것을 요구해나섰다.

이보다 앞서 이 나라의 한 교외에서는 경찰들과 무장단체들간의 지속적인 총격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사태가 지속되였다.

문제는 마께도니아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것이다.

정세분석가들은 이 나라에서 최근시기 일어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빚어진 사태와 신통히도 같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그 어떤 외적요인이 작용하고있다고 평하였다.

일리가 있는 소리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럽동맹가입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놓고 론의가 분분하다가 그것이 분쟁으로 이어지고 사회적혼란이 조성되였다. 정부군과 반정부군사이의 무장충돌이 일어나고 서부와 동부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였다.

그후 이것은 크림의 로씨야련방에로의 재통합과 동부지역의 도네쯔크주와 루간스크주가 각각 독립을 선포하는것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교활한 내정간섭책동과 지배주의야망의 검은 손길이 빚어낸 비극적산물이다.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사태의 모든 책임을 로씨야에 넘겨씌우면서 이 나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압박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에 앞서 반정부세력들을 사촉하여 그 나라 정부를 혼란시키고 내부를 분렬와해시키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우크라이나가 붕괴되고 이 나라가 혼란상태에 빠져들게 된것은 《색갈혁명》의 결과였다.

미국이 이전 쏘련의 가맹공화국들을 로씨야의 주위에서 떼내기 위해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형형색색의 《색갈혁명》을 조작한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목적은 이 나라들에 친미정권을 조작함으로써 로씨야에 대한 포위환을 바싹 좁히고 저들의 지배권을 손쉽게 확장하려는데 있었다.

마께도니아 역시 다를바 없다. 농산물수출에 크게 의존하고있는 마께도니아는 농업생산물의 대부분을 로씨야에 수출하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마께도니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추진하는 대로씨야제재에 합세하지 않았다.

로씨야가 추진하는 《뛰르끼예흐름》가스수송관건설계획에 마께도니아는 직접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로씨야가 추진하는 이 건설계획은 발칸반도를 거쳐 유럽에로 가게 되여있기때문이다.

지난 시기 미국과 유럽동맹은 로씨야의 《남부흐름》가스수송관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책동하였다. 그때 건설의 중요한 몫을 맡았던 벌가리아가 미국과 서방의 갖은 회유와 압력에 굴복하여 건설을 중단하였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로씨야의 《뛰르끼예흐름》가스수송관건설을 통한 발칸반도에서의 경제적협력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나서고있다.

만약 그 계획이 실현되게 되면 미국과 서방에 있어서 심대한 타격이 아닐수 없다.

마께도니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발칸반도에 자리잡고있다. 마께도니아를 그냥 놔두면 발칸반도를 비롯한 유럽지역에서 로씨야의 영향력이 높아지는것은 물론 로씨야를 포위압박하고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저들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될수 있다고 미국은 타산하고있다.

로씨야의 평론가 니꼴라이 다닐렙스끼는 도서 《로씨야와 유럽》에서 《지구상에 이와 같은 세계적인 교차점이 더는 없을것이다.》라고 하면서 발칸반도의 중요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유리한 거점을 그냥 놔둘리 만무하다. 미국은 발칸반도를 차지하면 지중해와 흑해를 지배하고 유럽의 남부와 아시아를 련결하는 통로들을 통제하며 가까운 지역들의 정세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군사적측면에서 그들은 발칸반도를 말그대로 모든 방향 즉 서쪽과 북쪽에서는 유럽을, 동쪽에서는 로씨야와 깝까즈지역을, 남쪽에서는 서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를 타격할수 있는 교두보로 간주하고있다.

지금 미국과 서방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있는 마께도니아를 어떻게 하나 저들의 손아귀에 거머쥐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고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된 《색갈혁명》의 각본을 또다시 이 나라에서 재현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쓰르비아에도 추파의 눈길을 돌리고있다.

쓰르비아 역시 로씨야의 《뛰르끼예흐름》가스수송관건설계획에 들어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이 나라로 하여금 로씨야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게 하고 저들의 품에 끌어들이기 위해 책동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발칸반도에서 로씨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저들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얼마나 교활하게 감행되고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

ㄱ-51096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